

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

1994

국립국어연구원

서문

어떤 번역이 좋은 번역인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심중팔구 해박한 외국어 실력을 연상하게 된다. 물론 번역에서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좀더 시야를 넓힌다면 그건 반만 맞은 정답이다. 번역에는 외국어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아울러 우리말을 이용한 '표현의 과정'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흔히 번역을 제2의 창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번역은 오히려 이 '표현의 과정'에 더 큰 비중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번역의 결과를 기대하려면 외국어도 외국어려니와 모국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번역을 이야기할 때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우리말 '표현 과정'을 포함하여 영어를 국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번역 전반의 이론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번역 과정에서 외국어와 국어 양쪽을 모두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보아서 양쪽의 언어 구조 차이와 문화적 배경 차이에서 말미암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한 문제는 번역자 자신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양쪽 언어의 문화에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언어 구조 차이로 인한 문제는 양쪽의 언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안목만 기른다면 비교적 단시일 안에 크게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언어 구조 차이로 인한 번역상의 문제를 크게 1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명사
2. 품사
3. 부정사와 연결 어미
4. 단수와 복수
5. 관사와 조사

6. 시제
7. 화법
8. 수동태
9. 어휘
10. 문장 부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영문 몇 개를 뽑아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번역에 반영해 보았다.

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

차례

서문	1
본문	
1. 대명사	5
2. 품사	12
3. 부정사와 연결 어미	17
4. 단수와 복수	24
5. 관사와 조사	30
6. 시제	40
7. 화법	45
8. 수동태	58
9. 어휘	62
10. 문장 부호	67
11. 번역의 실제	74

I. 대명사

<차례>

1. 영어의 대명사 체계

2. 국어의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

3. 번역상의 문제

3-1. 인칭대명사

3-2. 재귀대명사

1. 영어의 대명사 개관

1-1. 인칭대명사

영어의 인칭대명사 체계는 1인칭과 2인칭, 3인칭 각각에 대하여 단수와 복수 형태가 배당되어 있다. 인칭대명사는 앞에서 미리 언급된 명사 대신 사용된다. 인칭대명사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I, me; thou, thee; he, him; she, her; it / we, us; ye, you, they, them

1-2. 재귀대명사

재귀대명사는 자신이 출현하는 문장의 주어(를)를 지시하는데, 행위자의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감을 나타낸다. 즉 문장에서 동일한 행위자가 두 가지 성분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2) myself, th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oneself /
ourselves, yourselves, themselves

1-3. 부정(不定)대명사

막연하거나 일반적인 인상을 전달하고자 할 때 명사 대신 부정대명사를 사용하게 된다. 이 부정대명사는 기원적으로 명사로부터 발달했으며, 관사나 수식 형용사를 그 앞에 쓸 수 없다.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 (3) somebody, anybody, everybody, nobody /
something, anything, aught, nothing, somewhat, naught

만일 그 앞에 수식어가 놓이면 명사가 된다.

- (4) He thinks himself a somebody. (대단한 사람)
cf. Somebody is ringing. (누군가)

한편 any place 류나 anywhere 류의 부사도 오래된 부정대명사로 (3)과 별다른 의미차가 없이 쓰인다.

1-4.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일차적으로 선행 명사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대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 그 의미가 막연하거나 너무 일반적이어서 특정한 선행사를 갖지 않는 관계대명사도 있다. (물론 그 기능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와 동일하다.)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 (5) who, whose, whom, which, what, that

- (6) who, what; whoever, whosoever, whoso, what(so)ever; which, whichever

1-5. 의문대명사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답변을 기대하면서 사용하는 일종의 부정대명사를

의문대명사라 한다. (그러므로 기원적으로 부정대명사로부터 발달한 것이다.)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7) who, what, which (one)

이밖에도 주어라 지시하는 사람 쪽에서 상호 행위나 관련성을 표현하는 each other, one another를 상호대명사라 부르기도 한다.

2. 국어의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

국어의 대명사에는 인칭대명사, 사물대명사, 처소대명사, 재귀대명사 등이 있는데, 본절에서는 3인칭 대명사와 재귀대명사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2-1. 인칭대명사

우선 국어의 3인칭대명사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범주라고 한다. 그리하여 3인칭의 경우에는 선행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이 현저히 제약을 받고 있다. 다음의 예문이 이러한 사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앞으로 나오는 국어의 예문은 주로 「국어문법론」 pp. 243-250에서 인용한 것임)

(8) 저희 어머님은 올해 마흔 두 살이십니다. 어머님의 고향은 강원도의 한 소읍이십니다. 어머님은 아홉 살 때까지만 거기서 사시고 그 이후에는 줄곧 서울에서 사셨다 합니다.

위 (8)에서 둘째와 셋째 밑줄 그은 부분을 인칭대명사 '그녀'로 바꾸면 국어답지 못한 어색한 문장이 되고 만다. 이 점은 영어의 인칭대명사 용법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차이이다. 영어의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어의 3인칭대명사는 문어에서만 사용되고 그것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하겠다.

2-2. 재귀대명사

국어의 재귀대명사도 근본적으로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다시 받을 때 일반 대명사와 구분되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음 예문에서 둘 다 선행 대명사나 명사를 받고 있지만 (9.a)는 재귀대명사라 하지 않고 (9.b)만을 통상적으로 재귀대명사라 한다.

(9.a) 나는 내 이름자도 못 쓴다.

(9.b) 철수는 자기 반에서 일등만 한다.

국어의 재귀대명사에는 ‘저’, ‘자기’, ‘당신’ 및 복수형인 ‘저희’가 있다. 이들은 각각 자기 나름의 용법을 갖는다.

(10.a) 중도 제 머리는 못 깎는다.

(10.b) 중도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위 (10)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저’가 ‘자기’보다 선행사를 더 낮추어 가리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아래 (11)에서 보듯이 선행 명사가 존칭성을 갖는 명사라야 한다.

(11) 아버님은 오늘 종일 당신 방에만 계세요.

재귀대명사를 쓸 자리에 일반 대명사를 쓰면 더 객관적인 서술이 된다. 이러한 용법은 영어 등 외국어를 국어로 옮긴 번역문에서 온 영향으로 보인다.

(12.a) 김 박사는 그의 서재를 무척 아낀다.

(12.b) 김 박사는 자기의 서재를 무척 아낀다.

3. 번역상의 문제

위 2절에서 보았듯이 영어와 국어의 인칭대명사 및 재귀대명사는 그 용법이 상당히 다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명사화 자체가 영어에 비해 국어는 덜 의무적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예문 (8)에서도 보았듯이 특히 3인칭대명사의 경우에 이러한 차이는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인칭대명사는 상당 부분 명사로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 다음 (13)은 영어의 번역문이다.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을 일반 명사로 환원시켜 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것이다.

(13) 그가 그녀를 그녀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은 없었다.

(13') 까치가 엷지를 엷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은 없었다.

비단 3인칭대명사뿐만 아니라 1, 2인칭대명사도 대화문에서 흔히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예컨대 복잡한 거리를 지나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서로 인삿말을 건넨다고 하자. 이 때 다음 (14)의 두 예문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지 금방 판단이 설 것이다.

(14.a) “넌 어디 가니?” “응, 난 집에 가.”

(14.b) “어디 가니?” “응, 집에 가.”

한편 국어에서는 영어에 비해서 인칭대명사의 용법이 상당한 제약을 받으므로 영어의 인칭대명사를 우리말로 옮겨 줄 때는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여 호칭어나 지칭어를 써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국어의 호칭 및 지칭 체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때 호칭어나 지칭어는 경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아래 (15)처럼 나머지 부분도 경어법 체계에 맞게 손질을 해야 할 것이다.

(15.a) 그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했다.

(15.b) 노교수께서는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하셨다.

다음으로 재귀대명사 문제를 살펴보자. 영어와 국어는 양쪽 모두 재귀대명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쪽 언어 사이의 번역에서도 그대로 일 대 일로 반영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래 예문을 보자.

(16) Now, he heard of a woman who had cried for him.

(16.a) 그는 이제 그를 위해 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16.b)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울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위의 국어 번역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재귀대명사 ‘자기’ 또는 ‘자신’으로 바꾸어 놓은 (16.b)를 읽어 보자. 그러면 상당히 느낌이 달라질 것이다. 밑줄 친 ‘그’는 분명히 문장의 전체 주어 ‘그’와 동일한 인물인데, 위의 번역문에서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앞의 2절 말미에서는 ‘객관화’란 표현을 썼다.) 이에 비해서 이 ‘그’를 ‘자기’로 바꾸어 보면 전체 주어 ‘그’와 바로 연결이 될 것이다. 결국 영어에서는 재귀대명사(‘himself’)가 아닌 인칭대명사(‘him’)로 나타나 있어도, 국어로 옮길 때는 경우에 따라서 재귀대명사로 바꾸어 주어야 좋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물론 양쪽 언어에서 재귀대명사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영어의 재귀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절clause 경계에 묶여서 절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비해서 국어의 재귀대명사는 절의 경계를 뛰어넘어 심지어는 문장이나 담화의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위의 예문 (16)에서 살펴본 문제는 이처럼 양쪽 언어에서 재귀대명사가 세력을 미치는 범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의 재귀대명사 범위보다 국어의 재귀대명사 범위가 넓으므로, 위의 예문처럼 영어에서 인칭대명사로 표현되었던 것이 국어로 넘어오면서 재귀대명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2에서 보았듯이 재귀대명사를 사용할 때도 상황에 따라 ‘저’, ‘자기’, ‘당신’ 등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라는 재귀대명사를 상황에 맞게 번역어로 사용할 정도가 되려면 문맥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 예문을 보

고 번역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

(17) He (my grandfather) took good care of his grandson, me.

(17') 그는 그의 손자인 나를 잘 돌보았다.

(17'')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자인 나를 잘 돌보셨다.

II. 번역과 품사의 대응

<차례>

1. 품사의 대응
 2. 명사화 문제
-

1. 품사의 대응

번역문의 품사는 원문의 품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떤 규칙을 딱 떨어지도록 세울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직역일 때보다 의역일 때 양쪽 언어의 품사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원문의 영향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역일 경우에는 원문의 질서보다 우리 국어의 질서를 더욱 존중해서 '국어다운'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찍이 불경 언해의 전통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즉 동일한 한문 원전을 번역한 번역서들 가운데서 '언해'라는 제목이 붙은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직역에 가까운데 원문의 품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1) 원문 「法華經」: 諸根利鈍精進懈怠

(1.a) 諸根이 날카^르며 鈍^하며 精進^하며 懈怠^하며 月印釋譜

(1.b) 諸根의 利鈍과 精進과 懈怠^하며 法華經諺解

(1.a)는 체언적 어구가 용언적 어구로 품사를 바꾸어 번역되고 있으며, (1.b)는 체언적 어구가 원문의 품사 그대로 번역되고 있다. 후자가 직역의 번역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은 영어를 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우선 아래의 두 번역문을 보자.

(2) They don't insist upon the priority of qualitative difference,
but merely substitute non-growth for growth.

(2.a) 그들은 질적인 구별의 우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장 대신에 비성장을 대치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2.b) 그들은 질적인 구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장 대신에 비성장을 대치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위 두 번역문의 밑줄 그은 부분을 비교해 보면 (2.a)의 명사 '우선'이 (2.b)에서는 '우선하다'라는 동사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어에서 명사 '우선(優先)'보다 동사 '우선하다'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한 의미 전달력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읽는이의 가슴에 와닿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사 '우선'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우선-권', '우선-순위'에서처럼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관형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사실도 번역문 (2.b)의 품사 변동에 대한 한 근거가 될 것이다. 즉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양쪽 모두에 동일한 품사의 범주가 존재하고 대응되는 단어가 존재하더라도(위 예문의 'priority'와 '우선'처럼) 그 단어의 용법(의미 영역과 적용 범위 등)은 양쪽 언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쪽에는 존재하는 품사의 범주가 다른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자.

영어의 품사는 다음과 같은 8품사 체계를 이루고 있다.

(3)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를 국어의 품사 체계와 비교해 보면 우선 국어에 없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눈에 띈다. 전치사는 국어의 조사로 어느 정도 일 대 일 대응이 가능하므로 그다지 문제가 없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 아래 2장에서 다루게 된다.) 접속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국어와 영어는 접속 표현을 담당하고 있는 문법 범주가 다르다. 국어에서는 별도의 품사가 없이 주로 활용 어미가 그 기능을 맡고, 영어에서는 접속사라는 별도의 독립된 품사 범주가 그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 원문의 접속사를 일 대 일로 국어에 대응시키게 되면 동일한 기능을 두 가지 요소가 담당하게 되어 잉여적인 표현이 되고 만다. (원래 잉여성이란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주변의 상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표면에 드러난 현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역전(驛前)’ 하면 될 것을 ‘역전앞’이라고 한다든지, ‘낙수(落水)’ 하면 될 것을 ‘낙숫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에 잉여성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한자어와 고유어가 혼재되어 있는 국어의 특수한 여건상 그런대로 통용이 되는 말이지만, 잉여성의 정도가 심해져서 ‘아름다운 미문’식의 비문까지 나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번역문에서, 특히 접속 표현을 옮길 때 흔히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조건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접속사 ‘if’)을 국어로 ‘만일 ~ ...한다면’ 하는 식으로 옮기는 것이 그러한 잉여성의 예이다. 국어 번역문을 보면 사실상 ‘만일’이라는 부사와 활용 어미 ‘-면’이 모두 조건을 표현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어에는 접속 표현을 담당하는 한자어 부사들이 다수 있다. ‘만약’, ‘만일’, ‘설령’ 등이 그러하다. 이 점은 한문 원전을 언해하면서 원문의 접속어를 국어에 그대로 대응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한문 언해의 직역 전통이 지금까지 국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다. 이처럼 잉여성이 나타난 문장은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표현의 경제성과 명료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문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원문이 문학 작품 같은 읽을거리라면 잉여성은 상당한 흠이 될 수도 있다. 아래 두 번역문을 보자.

(4) Susan was very sad and felt an abyss of melancholy.

Because her sweetheart, the unknown Admiral, was gone forever.

(4.a) 수잔은 매우 슬펐고, 끝모를 깊은 고독을 느꼈다.

왜냐하면 연인이었던 이름 모를 제독이 곁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이다.

(4.b) 수잔은 매우 슬펐고, 끝모를 깊은 고독을 느꼈다.

연인이었던 이름 모를 제독이 곁을 영원히 떠났기 때문이다.

위 번역문 (4.a)를 보면 밑줄 그은 부분에 중복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과

서술어에만 이유 표현이 나타난 (4.b)를 비교해 보자. 앞 부분에 이유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후자가 오히려 전자보다 글에서 긴장감과 무언가 함축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에 비해서 전자는 다소 설명적이어서 글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문학 작품이라면 당연히 후자식의 번역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영어에 비교적 두드러진 명사화 구문의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한다.

지나친 명사문의 남용도 번역문에서 지적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래 예문을 보자.

(5) 'historic significance of this Convention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이 어구는 전치사 'as'를 전후로 일종의 명사화 구문이 되어 있는데, 다음의 두 번역문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이해가 쉬운지 살펴보자.

(5.a) (이 협약의) 중요한 기여자로서의 역사적 중요성

(5.b) (이 협약이)에 기여한다는 역사적 의의

아마도 (5.b)처럼 서술어로 풀어 주는 번역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체로 영어의 전치사를 우리 국어의 조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잘못이다. 우리 국어의 조사가 일반적으로 앞에 오는 어사 자리(주격, 목적격 등)를 표시하 적 단순한 기능을 하는데 비해서 영어의 전치사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서 살펴본 단어의 차원을 넘어서 구(句)로 확장된 경우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아래의 예문 쌍들에서 밑줄 그은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자.

(6) The two, having quitted their life in the upper story of the bar, moved into the suburbs and lived together with Nora's baby, Judy.

(6.a) 사람이 주점의 2층에서의 살림을 그만두고 교외로 이사하여 노라의 아기 주디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6.b) 두 사람이 주점의 2층에서 시작한 살림을 그만두고 교외로 이사하여 노라의 아기 주디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7) Gerald was her escape from the heavy slough of the underworld, automatic colliers.

(7.a) 제럴드는 지하세계의 기계화된 갱부들로부터의 도피처였다.

(7.b) 제럴드는 지하세계의 기계화된 갱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였다.

원문의 명사구를 풀어 준 위의 예문 (6.b)와 (7.b)를 보면 (6.a)와 (7.a)의 조사 ‘의’ 대신 각각 ‘시작한’과 ‘벗어날 수 있는’이라는 어구가 더 들어가서 읽기가 훨씬 수월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보충되는 어구는 항상 일정 불변의 정해진 어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선택되는 것이다. 앞서 ‘국어다운’ 번역문을 위해 원문의 품사를 상당 부분 희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어사들이 원문의 전치사가 담당했던 의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처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의 전치사는 국어의 조사보다 상당 부분 폭넓은 의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어 조사의 특수한 용법과 그 실제 용례는 마지막 제11장 ‘번역의 실제’를 참고할 것)

III. 부정사와 연결 어미

<차례>

1. 영어의 부정사 용법

2. 국어의 연결 어미

3. 번역상의 문제

1. 영어의 부정사 용법

본절에서 다룰 내용은 영어의 준동사(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 가운데서 특히 부정사의 번역에 관한 문제이다. 영어의 부정사에 대해서 그 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주어: To err is human.

(2.a) 서술어: To do good is to be happy.

(2.b) 서술어: He was made to shut the door.

(3.a) 목적어: He begged to go.

(3.b) 목적어: The question is difficult to answer.

(4.a) 부사어: We eat in order to live. (의도)

(4.b) 부사어: Let's go out to play the baseball. (목적)

(4.c) 부사어: My grandfather lived long enough to see me married. (결과)

(4.d) 부사어: I am very glad to meet you. (원인)

(4.e) 부사어: He is a happy man to have such a good son. (이유)

(4.f) 부사어: To see that scene, you would not believe it. (양보)

이밖에도 명사나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5) I have a lot of work to do today. (명사 수식)

(6) He is eager to start. (형용사 수식)

(7) She is too old to stand long. (부사 수식)

2. 국어의 연결 어미

용언의 활용에 참여하는 국어의 어미는 그 위치에 따라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뉜다. 존칭을 나타내는 {-시-}, 시제를 나타내는 {-았-} / {-더-}, 겸양을 나타내는 {-옵-} 등이 전자의 부류에 속한다. 문장을 마감시켜 주는 평서형, 감탄형 등의 종결어미와 문장을 연결하거나 전성시키는 비종결어미가 후자의 부류에 속한다. 여기서는 비종결어미 가운데서 연결어미에 대해서만 그 용법을 정리해 본다. 우선 아래 예문을 보자. (이 예문은 고영근, 남기심 공저 「표준국어문법론」, pp. 153-154에서 인용했음)

(8)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9) 별이 나면서 비가 온다.

(10)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하게.

(11) 서리가 내리면 앞이 빨갠게 물든다.

(12) 봄이 되니 날씨가 따뜻하다.

(13) 비가 오는데 어디 가느냐?

(14) 서가에 책이 많이 꽃혀 있다.

(15)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다.

(16) 나도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17)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위에서 (8)-(10)의 밑줄 그은 어미는 전후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주므로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한다. 여기에는 같은 기능을 보이는 {-며}, {-지만}, {-으나}, {-

락 ~ -락), {-거나 ~ -거나} 등에 포함된다. (11)-(13)의 밑줄 그은 어미는 앞문장을 뒷문장에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 주므로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아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14)-(17)의 밑줄 그은 어미는 보조용언을 본용언에 이어 주므로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한다. (14)-(17)까지의 보조적 연결어미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결어미를 그 의미 기능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8) 너무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어떡하니? (사건의 나열)
- (19)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보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된단다. (사건의 동시 발생)
- (20) 그 친구 그거 순경들이 뜨자 귀신같이 사라져 버렸어. (동시 연속)
- (21) 장인이 죽었지만 유산은 별로 없었다. (상반된 사건)
- (22) 해 지고 달 뜨면 서러움이 더해라. (조건)
- (23) 비가 왔으니까 길이 이렇게 질지. (추론 이유)
- (24) 널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다. (이유, 원인)
- (25) 가다가 말면 아예 가지 않은 것만 못하다. (중단)
- (26)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심화)
- (27) 하려고 (/하고자) 하면 안 될 일이 있겠느냐? (의도)
- (28) 시간 있으면 당장이라도 놀러 와. (목적)
- (29) 먹든 말든 난 모르겠다. (무관)
- (30) 어쨌든 먹어야 산다. (당위)

그런데 이들 종속적 연결어미의 용법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다음에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표준국어문법론』 pp. 391-392를 참조했음)

- (31.a) 비가 와서 길이 질다.
- (31.b)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 *
- (32.a) 길이 질어서 비가 온 것이 틀림 없다. *
- (32.b) 길이 지니까 비가 온 것이 틀림 없다.

- (33) 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했고) 쉬었다.
- (34) 피곤해서 좀 쉬자. *
- (35) 시간에 대어 오느라고 지름길로 오너라. *
- (36) 비가 그치거든 떠난다. *

(31)의 ‘-(아)서’는 앞절 내용이 뒷절 내용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므로 순서를 어기면 비문이 된다. (32)의 ‘-니까’는 추론을 통한 이유의 규명이 그 기능이므로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와 다르다. (33)에서 순서대로 발생하거나 동시 발생을 나타내는 어미 ‘-고서, -아/어서, -(으)ㄴ들, -건대, -자, -(으)ㄴ수록’ 등은 시제 표시 어미 ‘-았-, -겠-, -더-’ 등이 붙지 못한다. (34)-(35)에서 어미 ‘-아/어서(원인), -아/어야, -느라고, -건만, -거니와, -자’ 등은 명령형이나 청유형과 결합하지 못한다. (36)에서 ‘-거든’은 평서문이나 의문문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3. 번역상의 문제

위 2절에서 정리해 본 국어의 다양한 연결어미는 영어 준동사 부류의 자연스러운 번역에 대단히 효과적이다. 예컨대 1절의 예문을 번역한다고 하면 대체로 아래처럼 나올 것이다.

- (4.a) We eat in order to live.
- (4')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4.a)의 부정사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4')처럼 한문의 번역투로 하지 말고 연결어미 ‘-려고/-고자’를 사용하면 자연스럽다.

- (4'') 우리는 살려고 먹는다.

위 (4')과 (4'')을 비교해 보면 후자가 자연스러운 국어라는 점 이외에도 길이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길이가 짧다는 것은 여러모로 번역에 도움이 된다. 특히 자막이나 더빙에 의한 영상 번역 작업을 할 때는 글자 수의 제한이나 발화 시간의 제약을 받을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때 짧은 번역은 비교적 자유롭게 글자 수나 발화 시간의 조절이 가능하다. 위 (4)의 예문 중에서 셋만 연결어미로 옮겨 본다.

(4.b) Let's go out to play the baseball.

우리, 야구하러 나가자.

(4.c) My grandfather lived long enough to see me married.

우리 할아버지는 오래 사셔서 내가 짝을 지은 것까지 보셨다.

(4.d) I am very glad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무지 기쁘다.

한편 연결어미를 써서 옮길 때, 위 (31)-(36)에서 본 용법상의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 몇 개의 예문을 더 들어서 연결어미에 의한 번역을 연습해 본다.

(37) But what worried U.S.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Bill Clinton as he was awakened at 6:30 a.m. in Naples to hear the news, was who in North Korea or indeed on earth could be expected to command the authority that Kim had wielded in such matters.

중간에 있는 부정사 구문 'to hear the news'를 '김의 사망 소식을 듣기 위하여'처럼 목적 구문으로 옮기기보다, '(깨어나서) 김의 사망 소식을 들은'처럼 논리적으로 당연히 결과 표현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37') 그러나 나폴리에서 아침 여섯시 반에 잠을 깨서 김의 사망 소식에 접한 빌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우려한 바는, 김일성이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휘둘러온 것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북한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과연 누가 다시 또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였다.

(38) Unfortunately even the few drops stopped and presently the moon
shone in a clear sky.

위 (38)에서는 접속사와 부사 연결 부분을 연결 어미로 옮기면 좋을 것이다.

(38') 안타깝게도 그 몇 안 되는 빗방울조차 멈추더니 어느 틈엔가 맑은
하늘에 달이 빛나고 있었다.

한편 부정사가 있는 문형의 번역에서 형식 명사 '것'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현상
이 흔히 목격된다. 예컨대 위 예문 (1)을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는 '실수하는 것은
사람이다.'처럼 옮길 것이다. 아래의 예문들이 그러한데 가능하면 다른 보통 명사
로 옮겨 주는 편이 자연스럽다. 아래 번역문에서 '것'이 있는 번역과 '것'이 없는
번역을 각각 비교해 보자.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가? (최규일 교수의 논문 "한국어
'것'의 사용과 의미 기능," 「제주대 논문집」 38 참조)

(39) It is wrong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버릇은 나쁘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나쁘다.

(40) Nothing is so important as friendship.

우정보다 소중한 보물은 없다.

우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41) He has much experience, to say nothing of learning.

그 사람은 학식은 물론이려니와 경험도 풍부하다.

그 사람은 학식은 말할 것도 없고 경험도 풍부하다.

(42) His being a foreigner has complicated the matter.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했다.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했다.

(43) To love and to be loved is the greatest happiness in the world.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다.

그동안 흔히 지적되어 온 조사 '의'의 남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 '것'의 지나친 남용도 번역문에서 가능하면 피해야 할 사항이다.

IV. 단수와 복수

<차례>

1. 영어의 수 굴절(inflexion) -단수와 복수-

2. 국어의 수 표현

3. 번역상의 문제

1. 영어의 수 굴절 -단수와 복수-

영어는 수(number)와 성(gender), 격(case) 등에서 굴절을 보인다. 이 가운데서 수의 굴절은 해당 체언의 수가 하나(1)인 단수와 둘(2) 이상인 복수로 나타난다. (현대 영어 이전에는 해당 체언의 수가 둘(2)인 경우에 특히 양수(兩數) *dual number*라고 하는 굴절 범주가 존재했다. 이 양수는 지금도 둘(2)과 셋(3) 이상 사이의 대립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e.g. between us. among, each other us. one another) 단수 어미에 s-음형(音形)을 덧붙이는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복수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복수형의 표시 양상

calf → calves, wife → wives, thief → thieves

echo → echoes, mosquito → mosquitoes, potato → potatoes

child → children, ox → oxen, brother → brethren

deer → deer, sheep → sheep, swine → swine

formula → formulae, nebula → nebulae, alumna → alumnae

alumnus → alumni, focus → foci, fungus → fungi

addendum → addenda, agendum → agenda, bacterium → bacteria

index → indices, apex → apices, appendix → appendices

dogma → dogmata, stigma → stigmata

bandit → banditti, virtuoso → virtuosi

madame → mesdames, monsieur → messieurs

cherub → cherubim, seraph → seraphim

toothpick → toothpicks, horseman → horsemen

brother-in-law → brothers-in-law, man-of-war → men-of-war

2. 국어의 수 표현

국어는 위에서 본 영어의 경우처럼 수 표현의 변화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수 표현의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에서 복수를 표시하는 접미사로는 ‘-들’, ‘-회’, ‘-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네’는 복수성을 더한다기보다 무리나 집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고영근/남기심(1985) pp.89-90).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나머지 두 가지 복수 표현 접미사를 대상으로 그 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국어의 복수는 명사와 대명사에만 표시되고 수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사람들이 너나 없이 주식 투자에 열중이다.

* (3) 고등학교 동창 다섯들을 만났다.

물론 이러한 복수 표현은 해당 체언이 셀 수 있는 경우에만 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복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 예문 (4)와 (5)에서 이러한 수 표현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 (4) 여러 셋강의 물들이 합쳐져서 커다란 한강을 이루게 된다.

* (5) 우리나라는 어디든 공기들이 맑다.

한편 대명사는 복수 표현이 대단히 규칙적이다. (아래 패러다임에서 1인칭 복

수는 접미사 '-회'를 첨가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고 보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6.a) 나 : 우리(들), 저 : 저희(들)

(6.b) 너 : 너희(들)

(6.c) 그 : 그들

위 (6)을 보면 복수 표시 접미사가 첨가된 다음에도 이 형태에 다시 '-들'이 첨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들'은 셀 수 있는 명사와 대명사에 붙어서 해당 대상이 복수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다른 성분에 비교적 자유롭게 붙어서 주어가 복수임을 표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아래 예문 (7)을 보자.

(7.a) 왜들 그러니?

(7.b) 조용히들 해라!

위 (7)에서는 '-들'이 체언이 아닌 부사어에 붙어서 명령의 대상이 2인칭 복수임을 표시하고 있다.

3. 번역상의 문제

위 1절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의 굴절이 의무적이고 또한 이러한 수의 표시가 동사와 관사 등 문장의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현재형일 때 동사의 어미에 s-음형이 첨가된다.) 이에 비해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에서는 수의 표현이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수형의 표시가 오히려 특수한 현상으로 간주될 정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의 표현에 있어서 영어는 국어에 비해서 철저하고 규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국어로 번역할 때는 대체로 단수와 복수의 구분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단수 표현만 써도 무방하며, 논리를 좀 확

장시키면 오히려 복수 표현을 쓰지 말아야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지적은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다.

(8) 서산 너머로 해가 지자, 밤하늘에 별들이 뜨기 시작했다.

(9)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밤하늘에 뜨는 별은 물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아마도 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들이' 없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물론 같은 뜻을 가진 영어 문장에서 이 부분이 'stars'처럼 어김없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반면에 예문 (9)를 보는 독자들은 이 시집의 제목을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에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히 많은 별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를 국어로 번역할 때 국어에서는 오히려 복수 표현을 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국어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일반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 번역을 하다 보면 복수 표현을 꼭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아래 예문을 보자.

(10) The girls descended between the houses with slate roofs and blackish brick walls.

(10') 처녀들은 슬레이트 지붕에 까만 벽돌벽으로 된 집 사이로 내려갔다.

(10'') 처녀들은 슬레이트 지붕에 까만 벽돌벽으로 된 가옥들 사이로 내려갔다.

위 번역문 (10')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원문의 복수 표현('houses')이 무시된 채 그냥 단수('집')로 번역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일반론을 따른다면 여기서 복수 표시 접미사를 첨가하지 않은 번역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조치겠지만,

잘 읽어 보면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문장임을 곧 알 수 있다. 집의 벽을 불도저 같은 기계로 뜯고 그 사이로 걸어 내려가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에 복수 표현이 번역문에도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어의 복수 표시가 반드시 접미사만을 써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의 다른 요소, 예컨대 부사, 특수조사 등을 써서 복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소설에서 어떤 주인공이 열 손가락 모두에 반지를 하나씩 끼고 있는 장면을 국어로 표현해 본다고 하자.

- (11.a) 손가락들에 반지를 모두 끼고 있다.
- (11.b) 손가락에 반지들을 끼고 있다.
- (11.c) 손가락들에 반지들을 끼고 있다.
- (11.d)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있다.
- (11.e) 손가락마다 반지들을 끼고 있다.
- (11.f) 열 손가락 하나 하나에 줄줄이 반지를 끼고 있다.
- (11.g) 손가락이란 손가락에는 모두 줄줄이 반지를 끼고 있다.

위의 일곱 개 예문 가운데 넷째와 일곱째 정도가 원문의 의미도 제대로 전하고 국어로서 어색하지 않게 보인다. 그러니까 국어의 복수 표시는 꼭 접미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나 특수조사 등 다른 요소에도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은 복수와 단수의 대립을 통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번역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반영해 주어야 할 것이다.

(12) The moon was just coming over the hills, caught in a long cloud, giving her a fantastic shape. She was huge, dwarfing the hills, the earth, and the green pastures; where she was coming up was more clear, *fewer clouds, but she soon disappeared in a dark rain-bearing clouds. It began to drizzle and the earth was glad; it doesn't rain much here and every drop counts. The big banyan and the tamarind and the mango would struggle through, but the little plants and the rice crop were rejoicing at even a little rain.

Unfortunately even the few drops stopped and presently the moon shone in a clear sky. It was raining furiously on the coast, but here where the rain was needed, **the rain-bearing clouds passed away. It was a beautiful evening, and there were deep dark shadows of many patterns. The moon was very bright and the shadows were very still and the leaves, washed clean, were sparkling.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1행의 밑줄 그은 'a long serpentine cloud'의 번역이다. 단수를 표시하는 부정 관사 'a'에 대한 처리를 염두에 두어야 그 하단에 나오는 'fewer clouds'나 'in dark rain-bearing clouds'의 복수 표현(*로 표시된 부분)과 대립되는 원문의 표현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2')보다 (12'')가 이러한 효과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하겠다.

(12') 달은, 뱀같이 생긴 길다란 구름에 걸린 채 그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며 언덕 위로 탁 떠오르고 있었다.

(12'') 달이 언덕 너머로 탁 떠오르고 있었다. 뱀처럼 기다랗게 생긴 한 조각 구름에 걸려서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어의 1인칭 복수 표시 대명사는 사용 범위가 넓어서 영어의 1인칭 단수 표시 대명사 'my (father)'를 '우리 (아버지)'처럼 옮겨야 할 경우도 있으니 문맥을 보고 자연스러운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V. 관사 *article* 와 조사

<차례>

1. 영어의 정관사 *definite article* 와 부정관사 *indefinite article*

1-1. 정관사

1-2. 부정관사

2. 국어의 조사

2-1. 주격조사

2-2. 특수조사

3. 번역상의 문제

1. 영어의 정관사와 부정관사

1-1. 정관사

영어의 정관사는 기원적으로 현재 *that*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구형 지시형용사의 약화된 형태이다. 그 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조응 *anaphoric*

앞에서 이미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1) There lived once in this old castle a powerful king.

The king had a lovely daughter.

나. 한정 *determinative*

뒤따르는 소유격, 부사, 전치사 구, 관계절이 기술하는 정해진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2) The hat of my brother is blue.

그런데 이 한정 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ㄱ. 정관사 다음에 오는 명사는 흔히 수식어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해당되는 명사가 종류상 유일한 관계로 더이상의 수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3) the King, the Alps, the Hudson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나 자연물임)

ㄴ. 정관사는 흔히 일반화, 즉 하나의 개체가 소속 부류 전체를 대표하는 힘을 갖는다.

(4.a) The rat is larger than the mouse.

(4.b) He is a lover of the beautiful.

ㄷ. 고유명사 앞의 정관사는 해당 고유명사에 보통명사의 성격을 부여한다.

(5) He is the Shakespeare of our time.

1-2. 부정관사

부정관사는 기원적으로 수사 'one'의 축약형이라고 한다. (모음 앞에서 나타나는 부정관사의 교체형을 보면 이 단어에 원래 자음 'n'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물이나 행위를 두드러지게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6) an apple, an heir

앞선 시기의 영어에서는 'h'가 약하게 발음되었던 관계로 강세를 받는 음절에서 'h' 앞에 부정관사 'an'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교육의 혜택을 받은 현대 미국인들은 자음 'h'를 분명히 발음하므로 그 앞에 오는 부정관사도 규칙적으로 'a'를 선택하고 있다. 부정관사의 용법은 다음과 같다.

ㄱ. 불특정한 개별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킨다.

(7.a) We met an old man on our way here.

(7.b) There is a book lying on the table.

ㄴ. 정관사와 마찬가지로 일반화의 힘을 갖는다.

(8) A bee leads a kind of social life.

ㄷ. 한정하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때는 'such'의 의미를 갖는다.

(9) It was a sight that would make angels rejoice. (... 할 그런 광경 ...)

ㄹ. 원래의 의미인 하나(1)를 나타낸다.

(10) a foot long (=one foot long)

ㅁ. 혼란 경우는 아니지만 전치사 'on'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11) He goes to the city several times a year.

다. 가족의 구성원을 나타내거나 보통명사로 전성될 때 고유명사 앞에 올 수 있다.

(12.a) There isn't a single Jones in our village although it once seemed full of them.

(12.b) He is a regular Hercules.

이상으로 영어의 관사 용법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절에서는 기능상 관사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어의 조사(주격 조사/ 주제 표시 특수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국어의 조사

2-1. 주격 조사

체언 뒤에 붙어서 해당 체언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해 주는 '-이/-가'를 주격 조사라 한다. 주격 조사는 존칭 명사 다음에서 '-께서', 단체 명사 다음에 '-에서'로 교체된다.

(13.a) 할머니께서 모자를 손수 짜 주셨어요.

(13.b) 이번 시합은 서울중학교에서 이겼다.

본절에서 다루려는 주격 조사의 기능은 초점을 표시하는 용법이다. 주격 조사의 이러한 기능은 생략형과의 대비에서 확인된다.

(14.a) 결국 당신이 와 주셨군요.

(14.b) 결국 와 주셨군요.

위 (14)에서 위의 문장은 다른 사람 아닌 '당신'이 온 것이 화자에게 중요한 사

건이고, 아래의 문장은 안 오지 않고 ‘은’ 사건이 화자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 있다. 즉 위의 문장은 초점이 주어에 놓이고 아래의 문장은 서술어에 놓이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다음에 보는 주제 표시 특수 조사 ‘-는’의 용법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2-2. 특수 조사

분포에 있어서 격조사와 유사한 점을 보이지만 문법적 기능보다 의미를 주로 첨가해 주는 조사를 특수 조사라고 한다. (특수 조사는 분포에 있어서도 격조사보다 훨씬 자유로워서 명사 뒤뿐만 아니라 부사나 용언 어미 등과도 통합이 가능하다.)

- (15) 철수는 영어도 잘한다.
- (16) 결과는 오직 신만 알고 있다.
- (17) 너마저 나를 버렸구나.
- (18) 너까지 나를 못 믿겠다니 참으로 섭섭하다.
- (19) 동생조차 성적이 좋지 않구나.
- (20)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위 (15)-(20)은 다양한 특수 조사의 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가운데서 본절에서 다루려는 것은 (20)에 보이는 ‘-는(은)’이다. 우선 ‘-는(은)’은 배타와 대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아래 예문은 임홍빈/이익섭(1983:165-169)에서 인용했음)

- (21) 이 식물이 고산에서는 잘 자란다.

위 (21)은 ‘이 식물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모르지만 어떻든 고산에서는 잘 자란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즉 다른 장소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배타와 유사한 용법으로 대조의 기능을 들 수 있다.

(22) 나는 생물은 좋아했지만 화학은 싫어했다.

위 (22)에서는 생물과 화학이 대조되어 있다. 이 (22)를 (21)과 비교해 보면 (21)에서는 대조되는 부분이 문맥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배타와 대조는 넓은 의미의 '대조'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는(은)'은 주제 표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23) 소나무는 상록수이다.

(24) 철수는 머리가 참 좋은 아이다.

위 (23)-(24)의 문장은 (21)-(22)에서 보는 것처럼 대조의 짝을 상징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그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온당하다. 이 특수 조사에 '소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이라든가 '철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는(은)'이 붙는 명사가 출현하는 위치는 문장의 첫머리가 된다. 여기는 바로 주격 조사가 붙는 명사가 출현하는 자리와 동일하다. 양자는 동일한 위치에 출현하지만 그 기능은 서로 판이하다. (단 본절에서는 '-이/-가'의 초점 표시 기능과 '-는(은)'의 주제 표시 기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양자의 기능 차이를 아래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25) 철수가 반장이다.

(26) 철수는 반장이다.

위 (25)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철수'에 놓여 있고 (26)에서는 관심의 초점이 '반장이다'에 놓여 있다. 즉 (25)는 '다른 사람 아닌 철수'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임에 비해서 (26)은 '반장이라는 사실'이 관심의 대상이다. 결국 양자의 차이는 관심의 초점이 주어에 놓이느냐, 서술어에 놓이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의 신규 여부와도 관련된다. 즉 '-는(은)'은 이미 알려진 정보 *old information* 을 전달하는 데에 관여하고 '-이/-가'는 새로운 정보 *new information*를 전달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의 (27)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낼 때 ‘-는(은)’이 쓰이지 못하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7) 옛날 옛날 우리 마을에 한 어부(가/*는) 살았지요.

양자의 이러한 차이는 앞절에서 살펴본 영어의 관사 용법을 연상시킨다. (→ 1-1절의 (가) 및 1-2절의 (ㄱ) 참조) 다음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번역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3. 번역상의 문제

앞서 2절에서 살펴본 대로 국어의 조사 {-이/-가}와 {-은/-는}은 영어의 관사 용법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국어에서 양자는 출현하는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흔히 언중들은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국어의 화자는 언어 생활에서 입말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이 양자를 적절하게 구분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런데 글말이라면 사정은 사뭇 달라진다.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번역의 영역에 들어서면 더욱 심각해진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주어의 자리에서도 ‘-는(은)’을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주어를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내려는 원문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이러한 의도가 무시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물론 드물다.) 앞서 살펴본 영어의 관사와 국어의 조사 용법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부정관사와 주격 조사 정관사와 주제 표시 특수 조사에 대응된다. 그러므로 번역에서도 이러한 대응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 예문을 통해서 양자의 용법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의 번역문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예문에서 짝을 비교해 보면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28)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oy on the seaside.

(28.a)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이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28.b) 옛날 옛적에 한 소년은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

(29) Man is mortal without exception.

(29.a)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29.b)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 (?)

(30) Who was it that arrived? / It was I that arrived.

(30.a) 누가 왔니? 내가 왔어.

(30.b) 누가 왔니? 나는 왔어. (?)

(31) What is your name? / My name is Ch'ang-su.

(31.a)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창수야.

(31.b)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이 창수야. (?)

위 (28)에서는 문장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표현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이/-가'가 쓰여야 한다. 따라서 (28.b)가 틀린 문장이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원문의 부정관사에 나타나 있다. 부정관사와 주격 조사가 대응된 경우이다.

(29)에서는 주어인 '사람'이 일반적인 총칭어 *generic term* 이므로 화자나 청자가 알고 싶어하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초점도 서술어에 놓이게 되므로 (29.b)가 틀린 문장이 되었다. 원문에는 아무런 관사도 없으므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30)에서는 질문의 핵심이 '온 사람'이 누구냐에 있으므로 주어가 새로운 정보이고 알고 싶어하는 초점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주어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주격 조사가 쓰여야 한다. 원문에 강조 표현이 있으므로 강조된 부분에 초점이 놓인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주어에 강조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주격 조사를 대응시켰다.

(31)에서는 초점이 '이름'이 아닌 '이름의 내용'이므로 주어에는 '-는(은)'이 쓰여야 한다. 원문을 보면 'name'이 반복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주제 표시 특수 조사가 쓰여야 한다.

필자는 실제로 15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번역문을 수집한 바 있는데 다

음은 그 원문이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에 어떤 조사를 쓰는가를 조사한 결과 문맥에 맞게 옮긴 자료는 단 하나에 불과했다. 어떤 조사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전후 문맥의 파악이 관건이다.

(32) Bertrand Russell, reared in this tradition, later recalled the period when he hoped in time there would be 'a mathematics of human behaviour as precise as the mathematics of machines.' Then Darwin made another scientific revolution.

위 (32)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과학의 세기를 이야기하면서 뉴턴과 스펜서, 그리고 러셀의 전통에 이은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다. 즉 이 부분은 이 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따라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격으로 처리해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한 이야기의 도입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 문제는 전체 문장의 의미 해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잘못 사용되면 전체 문맥의 흐름에 엄청난 장애가 된다. 아래 번역문 (33.a/b)를 조사의 용법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해 보자.

(33.a) 이러한 전통에서 성장한 버트런트 러셀은 훗날 언젠가 '기계에 관한 수학만큼이나 정확한 인간 행태에 관한 수학'도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기를 회상했다. 바로 그 때 다윈이 또 다른 과학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33.b) 이러한 전통에서 성장한 버트런트 러셀은 훗날 언젠가 '기계에 관한 수학만큼이나 정확한 인간 행태에 관한 수학'도 나타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시기를 회상했다. 바로 그 때 다윈은 또 다른 과학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위 (33.b)를 읽어 보면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다

원'이라는 인물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서 표현하고자 한 필자의 의도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 그러므로 (33.a)처럼 주격 조사를 사용한 번역이 원문 필자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하겠다.

VI. 시제

<차례>

1. 영어의 시제 체계

2. 국어의 시제 표현

3. 번역상의 문제

1. 영어의 시제 체계

영어는 현재,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 미래완료의 6시제를 기본으로 이 6개 시제 각각에 진행 용법이 대응하여 정연한 12시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 동사 하나를 예로 들어 기본 시제 체계를 보이기로 한다.

- (1) I return. / I have returned.
- (2) I returned. / I had returned.
- (3) I shall return. / I shall have returned.

영어의 시제 체계는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3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 진행 시제를 진행상(progressive aspect)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영어의 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4) 종결상: 어떤 행위 전체를 사실, 습관, 특징, 일반 진리로서 나타냄.
 - a. I slept eight hours last night. / b. Water runs down hill.

(5) 진행상: 진행 중인 행위나 동작을 나타냄.

a. He is working in the garden. / b. The fire is crackling on the hearth.

(6) 순간 동작상: 행위 전체가 아닌 시작이나 끝의 한 점에 관심을 둠.

a. It is beginning to rain. (진입) / b. I ate up everything.(결과)

위 (4)-(6)에서 보듯이 진행상을 제외하면 영어의 상 표시는 동사가 특이한 형태를 취하는 일이 없이 동사와 관련된 의미 특성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2. 국어의 시제 표현

국어의 시제를 보면 과거와 현재의 대립은 어느 정도 뚜렷한데, 미래와의 대립은 그렇지 않다. 국어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었-', '-었었-', '-더-'가 있는데, 여기서는 회상을 나타내는 '-더-'를 제외한 두 가지 시제 표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었-'에 대해서 보자. ('국어문법론' pp.176-196 참조)

(7) 지금은 공부를 한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았다.

(8.a)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8.b) 김일성 사망 소식을 지금 막 들었다.

위 (7)을 보면 문장의 전후에 쓰인 두 시간 부사의 성격으로 보아 '-었-'이 과거를 표현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8)을 보면 '-었-'이 어떤 외부적인 기준시에 의한 과거 표현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현재 끝나 있는 상태(완료)라고 하는 편이 타당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8)의 동사에 과거라는 뜻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었었-'을 보자.

(9) 김 선수가 금메달을 땀는데, 이 선수는 지난 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땀었다.

(10)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났었다. *

위 (9)를 보면 ‘-있었-’이 ‘-있-’으로 표현되는 상황보다 앞서서 존재했던 상황의 서술에 쓰임을 알 수 있다. 일견 영어의 과거완료 용법과 비슷하지만, 비문인 (10)을 보면 그렇지 않다. 시간상으로는 분명히 ‘-있었-’이 쓰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형태소는 ‘-있-’의 상황이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있었-’의 상황과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9)에서는 메달을 따는 동질적인 상황이 전제되어 있지만, (10)에서는 전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내가 역에 도착한’ 상황과 ‘기차가 떠난’ 상황) 정상적인 문장으로 성립되지 못했다.

3. 번역상의 문제

번역 작업에서 우선 지적할 것은 양언어의 시제 체계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중요성이다. 예컨대 영어의 과거완료를 국어의 대과거로 대응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먼저 영어 원문의 시제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국어의 시제 표현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 (8), (10)과 같은 문장은 주의를 요한다. (한편 종속절의 시제 중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7장에서 다루었다.) 다음에는 예문을 통해 문장의 종류에 따른 시제의 번역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1) The moon was just coming over the hills, caught in a long cloud, giving her a fantastic shape. She was huge, dwarfing the hills, the earth, and the green pastures; where she was coming up was more clear, fewer clouds, but she soon disappeared in a dark rain-bearing clouds. It began to drizzle and the earth was glad; it doesn't rain much here and every drop counts. The big banyan and the tamarind and the mango would struggle through, but the little plants and the rice crop were rejoicing at even a little rain. Unfortunately even the few drops stopped and presently the moon shone in a clear sky.

위 (11)의 시제를 보면 전체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딱 한 군데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이 글의 표현 방식을 보면 대체로 묘사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묘사란 대상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즉 감각은 인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언어로 나타날 때 현재정보보다는 과거형(또는 과거 진행형)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이 점은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문장 전체의 시제는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4행 후반부터 5행 전반까지의 문장만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시제로 표현된 문장을 들여다보면, 그 문장이 자연 경관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풍토에 대해서 글쓴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술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문장의 기본 시제를 과거형으로 잡고中间的 한 문장만 현재형으로 옮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2)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Prompted by the desire to settle, in a spirit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ll issues r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and aware of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is Convention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of peace, justice and progress for all peoples of the world,

Recognizing the desirability of establishing through this Convention, with due regard for the sovereignty of all States, a legal order for the seas and oceans which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will promote the peaceful uses of the seas and oceans, the equitable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ir resources, the conservation of their living resources, and the study,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 (중략)

have agreed as follows:

위 (12)에 나타난 분사 구문의 의미를 시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자. 이 글은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의 전문(前文)인데, 전문이란 법령이나 헌장 등에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취지와 역사성, 경위 등을 밝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글도 해양법 협약이 제정되게 된 그동안의 경위와 구체적인 활동 및 의의를 공표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게 되면 각 문장이 분사(여기서는 현재분사)로 시작하고 현재완료로 끝맺은 것도 그리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다.

VII. 화법

<차례>

1. 영어의 화법 개요

- 1-1. 직접화법 *direct speech/discourse* 과 간접화법 *indirect speech*
- 1-2. 자유간접화법 *free indirect speech*
- 1-3. 인용문과 문장 부호

2. 국어의 인용문 개요

3. 번역상의 문제

- 3-1. 시제의 중화
 - 3-2. 대화의 절단 *clefting*
 - 3-3. 문장부호와 인용문
-

1. 영어의 화법 개요

1-1.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영어의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예문에 드러난 형식상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1.a) He said: 'I am very angry'. (직접화법)

(1.b) He said that he was very angry. (간접화법)

간접화법의 경우에는 화자의 말이 인용문 안에서 *that*-절의 형태로 '종속'되어 있는 반면, 직접화법의 경우에는 화자의 발화가 따옴표를 빌어서 인용문 안에 '흡

수'되어 있으면서도 주절로서 갖는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념상으로 볼 때, '흡수'된 발화는 인용절의 구조 속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위의 예문에서 '흡수'된 발화는 개념상 동사 'said'의 직접 목적어이다.

구조적으로 볼 때, 직접화법에서 인용절(여기서 '인용절'이란 발화를 이끄는 주절을 말함 = reporting clause)은 발화 자체의 앞, 뒤, 내부 어디든 비교적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영어의 화법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국어의 화법과 좋은 비교가 된다.) 인용절이 어두에 출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재나 과거 시제에서 다음의 예문 (2)와 같은 주어와 인용동사의 도치도 가능하다. (신문 기사 경우에는 문두에서도 도치가 일어나는 수가 있다. (예) Declared tall, stubborn Napier: 'The show will go.'

(2) 'I am your friend,' John said. / he said. / said John. (all O.K)

물론 인용절의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 said he. 처럼 도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고형(古形)이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구어에서 : 'says I'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인용절이 문장의 중간에 놓이는 것은 지극히 흔한 현상이다.

(3) 'Of course,' said Mr. Jones, 'we are very grateful.'

화법의 전환은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3인칭으로 변하는 현상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의 전환을 동반한다.

(4) 'I'll behave myself,' he promised.

→ He promised that he'd behave himself.

위 예문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칭대명사가 변화를 입었다. 물론 장소나 날짜를 나타내는 부사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입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동사구문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전향 이동 (back-shift)이라 불리는 시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간접화법의 '거리 띄우기 효과'(distancing effect)에 기여한다. 다음에 시제의 변화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 직접화법의 현재 → 간접화법의 과거
 " 과거, 현재 완료, 과거완료 → " 과거완료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결국 전향 이동은 인용된 사건을 과거시제의 인용동사가 이끌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전향 이동'이란 술어도 그러니까 인용문에서 의미상으로 과거 시제로 향하는 이동이 일어나면 인용절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 (필요하다면 과거완료)로 향하는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에 몇 개만 예를 들어본다.

- (6) 'I am tired,' she complained.
 → She complained that she was tired.
- (7) 'The exhibition finished last week,' explained Ann.
 → Ann explained that the exhibition had finished the preceding week.
- (8) 'I've won the match already!' exclaimed our friend.
 → Our friend exclaimed that he had won the match already.
- (9) 'The whole house had been ruined,' said the storyteller.
 → The storyteller said that the whole house had been ruined.

위 예문 (9)에서 동사의 변화가 없는 것은 영어에 '과거의 과거의 과거'라는 표현 양식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전향 이동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본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전향 이동은 과거에 발화된 내용을 인용할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시간상의 '거리 띄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진술이 발화시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그 값어치가 유효하다면 이러한 전향 이동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아래의 예문을 비교해 보

자.

(10) 'I am a citizen, not of Athens, but of the world,' said Socrates.

→ Socrates said that he was a citizen, not of Athens, but of the world.

(11) 'Nothing can harm a good man,' said Socrates.

→ a. Socrates said that nothing could harm a good man.

b. Socrates said that nothing can harm a good man.

예문 (10)의 진술은 소크라테스 생전의 시간에 국한된다. 따라서 현대의 보고자가 그 말을 인용하면 당연히 과거의 사건이 되며, 따라서 전향 이동의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11)은 보편적인 진술이므로 소크라테스 시절에 참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참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a)처럼 전향 이동의 규칙이 적용되어도 좋고 (b)처럼 적용되지 않아도 좋다. (동사의 전향 이동이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칭대명사의 전환도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다른 평서문 이외에도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등도 간접화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간단히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간접화법 평서문: that-절

간접화법 의문문: wh-종속절

간접화법 감탄문: wh-종속절

간접화법 명령문: to-부정사절 (주어는 없음)

예문은 다음과 같다.

(13) 'Are you ready yet?' asked Joan.

→ Joan asked (me) whether I was ready. (관정 의문문)

(14) 'When will the plane leave?' I wondered.

→ I wondered when the plane would leave. (설명 의문문)

(15) 'How brave you are!' Margaret told him.

→ Margaret told him how brave he was. (감탄문)

(16) 'Be quiet!' I told him.

→ I told him to be quiet. (명령문)

위에서 언급한 전향 이동은 의문문과 감탄문에 적용된다. 그러나 명령문에는 정동사(定動詞, finite verb)가 없기 때문에 전향 이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간접화법 명령문의 인용동사는 그 다음에 반드시 간접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뒤따라야 한다. 예문을 들어본다. (명령의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7) 'Sit down,' I snapped.

→ I snapped to sit down. *

→ I snapped at him to sit down. (O.K)

좀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동사의 모양을 바꾸고 적절한 부사(구)를 덧붙여 주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 (17)을 이런 방식으로 전환시킨 예문을 들어 본다. (그러니까 '차갑게 말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snap'을 '차갑게'라는 부사(구) 'sneeringly/with a sneer'와 증립동사 'told'로 바꿔 준 것이다.) 여기서 화법 전환의 융통성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화법 전환의 핵심은 객관화된 사건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18) I told him (sneeringly/ with a sneer) to sit down.

한편 당연한 논리이지만 메아리(echo) 의문이나 감탄문에는 간접화법이 없다. 굳이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는 있다.

(19) Are you satisfied or not?

→ I asked him whether or not he was satisfied.

간접화법의 조동사도 동사의 전향 이동을 겪지만 그에 상응하는 과거형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형태의 변화를 입지 않는다.

(20) 'You must be hungry.'

→ He said that they must be hungry.

1-2. 자유간접화법

자유간접화법은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소설 등과 같은 현대의 이야기 서술 장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형태의 화법은 기본적으로 간접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접화법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인용절이 생략된다. 따라서 'he said/ asked' 등의 표현이 없다. (따옴표도 없다.)

둘째, 직접화법 문장 구조의 서법(직접 의문, 호격문, 부가의의문 등)이 그대로 보존된다.

그러므로 해당 발화가 직접화법이 아닌 간접화법임을 나타내는 신호는 대명사나 부사, 한정사 등의 변화를 동반하는 동사의 전향 이동밖에 없다. 아래에 예문을 보자.

(21) So that *was* their plan, *was* it? He well *knew* tricks, and *would* show them a thing or two before he *was* finished. Thank goodness he *had* been altered, and that there *were* still a few honest people in the world!

위 (21)에서 이탤릭체로 된 동사들이 과거 시제로 향하는 전향 이동을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특히 실제 대화보다 등장인물의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유간접화법이 많이 쓰인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 (21)에서도 인용절이 일반적인 'he said'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어울리는 'he thought'가 된다. (물론 의식의 흐름 이외에도 그냥 대화에서 직접화법이 담고 있는 분위기를 전달할 목적으로 자유간접화법이 쓰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

1-3. 인용문과 문장 부호

따옴표는 단일 부호('.....')일 수도 있고, 복합 부호(".....")일 수도 있다. 필기나 미국권의 출판물에서는 후자가 더 많이 쓰이고, 영국권의 출판물에서는 전자가 많이 쓰이지만, 선택은 전적으로 출판자의 기호나 전통에 따른다.

(22.a) The words 'Keep out' were shouted in a loud voice.

(22.b) The words "Keep out" were shouted in a loud voice.

한편 따옴표 안에 포함된 부분은 구어 문장을 나타내므로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인용된 문장의 말미에 마침표를 찍는 형식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3.a) 'I am delighted to see you,' he said.

(23.b) He said, 'I am delighted to see you.'

일반적인 1차 인용문에서 쓰이지 않은 부호는 따옴표 안의 따옴표로 쓰일 수 있다. 아래 예문 (24)는 따라서 모두 용인 가능하다.

(24.a) 'I heard "Keep out" being shouted,' he said.

(24.b) "I heard 'Keep out' being shouted," he said.

인용된 사건이 반드시 따옴표 부호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대사나 신문 기사 또는 법정 진행에서 인물의 이름 다음에 콜론을 쓰고 인용문이 나올 수 있다.

(25) Hamlet: The frailty, thy name is woman.

(26) Arthur Smith: Unless you speak frankly, the jury will immediately take an action!

길이가 긴 인용문은 매단락의 첫머리에 시작하는 따옴표를 붙여준다. 끝나는 따옴표는 물론 전체 인용문의 마지막에 붙여 준다. (국어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2. 국어의 인용문 개요

국어의 화법은 인용절의 용법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27)에서 마지막 것은 남의 말을 직접 인용한 직접 인용이며 나머지는 생각과 판단이 포함된 간접 인용이다.

- (27) 가. 나는 진화론의 성립을 자연과학의 발달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 우리는 학생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 존엄하다고 믿는다.
르. 영이는 나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口. 철호는 “아, 정말 아름다워!”라고 말했다.

위 예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접 인용문에는 ‘-라고’가 붙고 그 이외에는 ‘-고’가 붙는다. 평서문에 ‘-고’가 붙을 때 인용되는 부분의 종결어미는,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다’가 되고, 계사가 서술어일 때 ‘-라’가 된다. 그리고 의문형은 ‘-느(으)냐’, 명령형은 ‘-(으)라’, 청유형은 ‘-자’가 각각 쓰인다.

- (28) 영이는 그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29) 영이는 그 그림자가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의 두 가지 인용 조사 이외에 다음 예문과 같이 남의 말이나 바람소리, 울음소리 따위를 그대로 흉내내어 전달하는 경우에는 ‘-하고’라는 형태소를 붙일 수가 있다.

- (30) 선생님이 “조용히들 해!”하고 말씀하셨다.
(31) 멀리서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쿵’하고 울렸다.

이때는 보통 문장이라도 대개 억양까지 흉내를 내서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라고’가 쓰일 때와의 차이이다. 국어에는 의성어나 의태어에 ‘-하다’를 붙여서 용언으로 쓰는 용법이 있다. 예컨대 ‘반짝반짝한다, 팔랑팔랑한다’ 등이 그러한데 말하자면 위 (30)-(31)의 ‘-하고’도 여기서 연유된 것으로 ‘쿵!하다’에 연결어미 ‘-고’가 붙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고’도 인용 조사로 취급할 수 있다.

3. 번역상의 문제

3-1. 시제의 중화

앞서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에는 전향 이동의 규칙에 따라 인용된 절의 동사가 인용동사 시제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의 문장을 국어로 옮길 때는 전향 이동된 동사의 시제를 다시 원상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아래의 예문에서 (32)-(43)는 동사의 시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2절에서 다른 국어의 인용문 형식에 맞추어 그대로 옮겨 주면 된다. (번역은 되도록 직역의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국어에서는 인용절이 영어에서처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고 (32)처럼 두 가지뿐이다.)

(32) He said: 'I am very angry'. (평서문)

→ 그는 “(나) 몹시 분해.”라고 말했다.

→ 그는 말했다. “(나) 몹시 분해.”

(33) 'I am tired,' she complained. (")

→ 그는 “(나) 피곤하단 말이야.”라고 불평했다.

(34) 'The exhibition finished last week,' explained Ann. (")

→ 앤은 “그 전시회는 지난주에 끝났어.”라고 설명했다.

(35) 'I've won the match already!' exclaimed our friend. (")

→ 우리 친구는 “그 경기는 내가 벌써 이겼어.”라고 외쳤다.

(36) 'The whole house had been ruined,' said the storyteller. (")

→ 이야기꾼은 “집 전체가 이미 폐허로 변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37) 'I am a citizen, not of Athens, but of the world,' said Socrates. (")

→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난 아테네의 시민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이다.”

(38) 'Nothing can harm a good man,' said Socrates. (")

→ 소크라테스는 “그 무엇도 선한 자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

(39) 'Are you ready yet?' asked Joan. (판정 의문문)

→ 조안은 “준비 됐니?”라고 물었다.

(40) 'When will the plane leave?' I wondered. (설명 의문문)

→ 나는 “비행기가 언제 떠나지?”라고 자문했다.

(41) 'How brave you are!' Margaret told him. (감탄문)

→ 마가렛은 그에게 말했다. “넌 참 용감해!”

(42) 'Be quiet!' I told him. (명령문)

→ 나는 그에게 말했다. “조용히 해!”

(43) 'Sit down,' I snapped. (")

→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앉아!”

그러나 다음 (44)-(55)에 이르는 간접화법의 번역에는 앞서 언급한 전향 이동의 원상회복 절차가 필요하다. 물론 국어의 간접 인용문 형식에도 맞아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양언어의 어떠한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가는 분명치 않지만, 양언어가 갖는 화법 자체의 차이일 수도 있고 형식상의 차이(예컨대 국어의 인용 조사 '-고'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이다.)

(44) He said that he was very angry. (평서문)

→ 그는 매우 분하다(*분했다)고 했다

(45) She complained that she was tired. (")

→ 그녀는 피곤하다(*피곤했다)고 투덜거렸다.

(46) Ann explained that the exhibition had finished the preceding week. (")

→ 앤은 그 전시회가 앞선 주에 끝났다(*끝났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47) Our friend exclaimed that he had won the match already. (")

→ 우리 친구는 자기가 그 시합을 이제 이겼다(*이겼었다)고 소리쳤다.

(48) The storyteller said that the whole house had been ruined. (")

→ 이야기꾼은 집 전체가 폐허로 변해 버렸다(*버렸었다)고 말했다.

(49) King said that he was a citizen, not of Athens, but of the world. (")

→ 대왕은 자신이 아테네의 시민이 아니라 세계의 시민이라(*시민이었다)고 말했다.

(50) Socrates said that nothing can harm a good man. (")

→ 소크라테스는 그 무엇도 선한 자를 해칠 수 없다고 말했다.

(51) Joan asked (me) whether I was ready. (판정 의문문)

→ 조안은 준비가 됐느냐고 내게 물었다.

(* 여기서 '됐-'의 형태소 '았'은 과거시제가 아니라 완료 상태를 나타냄)

(52) I wondered when the plane would leave. (설명 의문문)

→ 나는 비행기가 언제 떠나는지 궁금했다.

(53) Margaret told him how brave he was. (감탄문)

→ 마가렛은 그가 참 용감하다(*용감했다)고 감탄했다.

(54) I told him to be quiet. (명령문)

→ 나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

(55) I snapped at him to sit down. (")

→ 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차갑게 말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영어 원문에서는 간접화법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국어로 번역할 때 자유간접화법으로 옮겨 주는 것이 원문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경우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56) Her tempter friend, Serpent suggested her that this would not really be a bad deal and that it might actually be beneficial.

위 (56)은 뱀이 이브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동사 'suggest'를 보면 이 부분이 간접화법으로 된 인용문임을 알 수 있다. 일단 종속절이 둘씩이나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간접화법으로 옮겨 주려면 어쩔 수 없이 형식명사 '것'을 최소한 두 번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유혹이라는 상황의 전달도 어딘지 모르게 불충분해진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영어의 자유간접화법 형식을 빈 번역이다.

(56') 유혹자 친구 뱀은, 그게 뭐 그리 나쁜 짓이나, 아마 모르긴 해도 맛도 굉장히 좋을 거야, 하고 이브를 꼬였다.

3-2. 대화의 절단

앞서 1-1.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용절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어서 중간에 나타날 때는 인용된 문장을 인용절이 중간에서 둘로 분리하게 된다. 이른바 대화문의 절단(clefting)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이러한 절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를 국어로 옮길 때는 인용절의 위치를 문두나 문미로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아래 (57)의 예문에서 마지막 번역문은 대화문의 절단으로 인하여 국어에서 비문이 되고 말았다.

(57) 'Of course,' said Mr. Jones, 'we are very grateful.'

→ 존즈 씨는 "물론 우리 아주 고마워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 존즈 씨는 말했다. "물론 우리 아주 고마워하고 있어."

→ "물론," 존즈 씨는 말했다. "우리 아주 고마워하고 있어." *

만일 국어의 번역문에서 이러한 절단을 용인한다면 원문의 뜻과 상당히 다른 뜻을 가진 문장으로 변하고 말 위험성이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기본적으로

양언어에서 서술어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도 이러한 절단의 용인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58) "Isn't it an amazing thing," cried Amy, "how strong the temptation is, not to live!"

(58.a) "깜짝 놀랄만한 일이 아닐까," 하고 에이미가 말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은!"

(58.b) 에이미가 말했다. "하고 싶지 않다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아닐까!"

(58.a)는 언뜻 인용절 앞뒤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단이 국어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3. 문장 부호와 인용문

한편 따옴표 이외의 문장 부호, 예컨대 콜론으로 도입되는 인용문은 신중한 처리를 요한다. 전체 문장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해당되는 부분이 인용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콜론에는 인용문의 유도 이외에 다른 기능이 있다.) 아래 예문 (59)에서는 'lecture'라는 단어의 존재가 문장 부호 이하의 문장이 인용문임을 알게 해 준다.

(59) the inductive view of historical method which I described in my first lecture: first collect your facts, then interpret them.

→ 먼저 사실을 수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집된 사실을 해석하라고 한 내 첫번째 강연에서 기술한 바 있는 귀납적 관점의 역사학 방법론

VIII. 수동태

<차례>

1. 수동태와 능동태

2. 국어의 피동법

3. 번역상의 문제

1. 수동태와 능동태

영어에는 두 가지 태가 존재한다. 능동태는 주어가 무언가를 행하거나 무언가가 됨을 나타낸다.

(1) Tom makes good food.

(2) John is becoming tired.

수동태는 행위의 대상이 된 주어를 나타낸다. 그리고 타동사만이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계사 be를 타동사의 과거분사에 붙여서 만드는 데(→(3)-(4)), 현재형의 수동태일 경우에 구어(口語)에서는 계사 be 대신에 get, become 등을 쓰기도 한다(→(5)-(6)).

(3) Our house is painted every year.

(4) Tom was punished for disobeying his mother.

(5) Our house gets painted every year.

(6) He became seized with a profound melancholy.

2. 국어의 피동법

국어에도 영어의 경우와 유사한 피동문이 존재한다. 피동문은 타동사 어간에 피동접미사인 {이, 히, 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피동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행동주와 함께 '에게'나 '한테'가 나타난다.

(7) 장미가 아이들한테 밟혔다.

(8) 아기가 벌에 쏘였다.

(9) 이번에 회장이 갈렸다.

이밖에도 국어에는 '-아/어지다' 구성에 의한 통사적 피동법도 존재한다.

(10) 바람에 낙엽이 떨어진다.

3. 번역상의 문제

영어의 타동사 구문은 능동태와 수동태를 짝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화자의 관심에 따라 능동태와 수동태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된다. 예컨대 능동의 주어와 불분명하거나 반대로 너무나 자명할 때와 능동의 주어보다 수동의 주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는 수동태가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국어의 피동은 피동화할 수 있는 피동사의 부류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우선 동사화 접미사 '-하다'가 붙은 타동사는 피동사를 갖지 않는다. 또한 '주다', '받다'와 같은 수여동사나 '얼다', '찾다'와 같은 수혜동사도 피동사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알다', '배우다'와 같은 경험동사나 '만나다', '답다'와 같은 대칭동사도 피동사를 갖지 않는다.

이처럼 영어에 비해서 국어의 피동사는 그 부류가 현저히 제약되어 있으므로 영어의 수동문 중에서 상당수는 국어에서 단순히 (능동문의 동사와 대응되는 국어의 동사 어간에) 피동접사를 부착시켜 가지고는 원하는 피동사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는 동사를 바꾸어 주든지 능동문으로 옮기든지 해야 한다. 능동태 동사의

어간을 무리하게 조작하면 안 된다. 예컨대 아래 (11.a)와 같은 비문을 만들어서
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11) His story is seldom told by his own telling.

(11.a) 그의 이야기가 스스로의 입으로 말해진 일은 거의 없다.

(11.b) 그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말한 일은 거의 없다.

(11.c)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거의 없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의 피동문에는 ‘한테’와 ‘에게’ (간혹 ‘-에’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가 행위자에 붙어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태이므로
‘-에 의하여’ 식으로 행위자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2) The thief was caught by a brave citizen.

(12.a) 그 강도는 용감한 한 시민에 의하여 붙잡혔다.

(12.b) 그 강도는 용감한 시민한테 붙잡혔다.

실제로 ‘follow’, ‘precede’ 등의 타동사가 있는 수동태 구문을 ‘-에 의하여’ 식으
로 직역하게 되면 읽는 이가 그 정확한 뜻을 알 가망은 거의 없어 보인다.

(13) The destruction of machinery was preced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13') 기계 파괴는 산업혁명에 의하여 선행되었다. (??)

이밖에도 이중피동 형식인 ‘되이다’의 사용도 피해야 할 것이다. 실제 번역에
서는 어떻게 하면 영어의 수동태가 가진 특성(굳이 수동태를 택한 화자의 의도)
도 살리면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래 예

문 (14)를 보자.

(14) Having been condemned by Nature and Fortune to an active and restless Life; in two Months after my Return, I

(14') 잠시도 쉬지 말고 몸을 움직이도록 자연과 운명에 의해 선고를 받아 온 나는 돌아온지 두 달도 채 못 되어서

(14'') 잠시도 쉬지 말고 몸을 움직이도록 자연과 운명의 여신이 쳐 놓은 덫에 걸린 나는 돌아온지 두 달도 채 못 되어서

IX. 어휘

본장에서는 국어 어휘 체계의 특징 몇 가지와 번역상의 주안점을 특정한 순서 없이 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는 문장 전체의 분위기, 즉 양상(modality)을 조동사 'can', 'must', 'would' 등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국어에서는 이러한 범주를 '버리다', '두다', '주다' 등의 보조동사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다음 예문은 각종 보조동사에 나타난 화자의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표준국어문법론」 pp. 412-413에서 인용했음)

- (1) 창수는 하루 저녁에 원고지 50매의 글을 써 냈다. (어려운 일의 극복)
- (2) 죽어 가는 환자를 살려 놓았다. (상태의 이동, 변화)
- (3) 이 꽃은 옮기지 말고 그대로 심어 두세요. (상태의 유지)
- (4) 나는 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준다. (혜택의 전달)

다음에는 구체적인 번역을 예로 들어서 조동사의 용법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5) She offered the apple to Adam, figuring that at least she would not be alone. And Adam, poor fellow, took the apple.

이 문장을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이 사과를 받아 먹은 것이 대단히 애석하고 아쉬운 일이다. 이러한 필자의 심정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국어의 결과 표시 조동사 '버리다, 말다'의 용법이다. (서술어를 단순히 '먹었다'로 번역했을 때의 문장 분위기와 비교해 보자.)

(5') 그리하여 이브는 그렇게 되면 혼자만 외롭진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담에게 사과를 건네 주었고, 그러자 우리의 불쌍한 친구 아담은 그만 그 사과를 받아 먹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목적어와 서술어 사이,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연결 관계 (혹은 선택 제약)에 대한 문제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6) The tragedy of Korea is further heightened by the fact that as military action is confined to its territorial limits, it condemns that nation, which is our purpose to save, to suffer the devastating impact of full naval and air bombardment, while the enemy's sanctuaries are fully protected from such attack and devastation.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heightened'라는 단어의 번역어 문제이다. 이 동사(과거 분사)는 'tragedy'에 걸리는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 '고조되다'나 '심화되다', '커지다' 정도가 후보로 떠오른다. 그런데 필자가 유사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 예컨대 'enlarge', 'deepen' 등을 제치고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가운데서 '고조되다'가 가장 문맥에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긴장이 고조되다'와 같은 연결 관계를 연상하면 쉽게 납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서술어와 특정한 목적어 사이의 선택 제약 내지 지배 관계도 모국어 화자의 중요한 문법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문을 하나 더 보자.

(7) Korean has been variously connected with Dravidian, Austronesian, Palaeo-Asiatic, Chinese, and, most convincingly, with the Altaic languages, with which it certainly shares many grammatical features. How many of these resemblances are areal or typological, however, is a moot point, and the exact genetic affinity of Korean remains questionable. The Chinese element is very large but essentially alien.

위에서 마지막 문장에 나온 단어 'large'의 번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단어 'large'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크다'라는 어휘가 떠오르는데, 주어인 '중국어적 요소'와 관련시켜 볼 때, '중국어적 요소가 크다'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말의 '크다'가 상하의 길이를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고 공간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적인 확장의 의미를 가진 '광범위(하다)'라는 한자어를 쓰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크다'처럼 '크다'에 의미를 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동음이의어의 처리 문제이다. 이 때는 한자를 병기해서 의미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8) In his meeting last month with Jimmy Carter, Kim virtually overnight defused tensions by promising the former U.S. President that he would freeze the nuclear program.

밑줄 그은 어휘 'the former U.S. President'의 번역을 생각해 보자. 'the former U.S. President'는 문자 그대로 '이전의 대통령'이다. 언뜻 '전직'이라는 표현이 떠오르지만 이 표현을 잘 음미해 보면 한 사람의 전체 이력 가운데서 어느 한 시기가 대통령이었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원문과 상당히 달라져 버린다. 한자어 '전'을 사용하되 뒤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해 두는 수밖에 없다.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동음이의어 '전'(全)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두 번 연속해서 패권을 차지한다'는 뜻의 2연패(連霸)와 '두 번 연속해서 진다'는 뜻의 2연패(連敗)도 한자의 병기로 모호성을 피할 수 있다. 한자어를 적절히 병용하면 적어도 문자언어에서는 의미의 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추상성을 질게 갖는 명사형의 사용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아래 예문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자.

(9) The magnificence of the courage and fortitude of the Korean people defies description.

이 부분을 직역하면 ‘용기와 투지의 장엄함’, ‘인내의 대단함’ 정도가 되겠는데, 이러한 번역은 명사형 ‘장엄함’의 추상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럴 때는 순서를 바꾸어서 ‘장엄한 용기와 투지’ 식의 번역이 오히려 국어의 질서에 어울리는 표현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문장의 종류에 따른 어휘의 선택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위 예문 (6)의 ‘territorial limits’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선 사전적 의미의 번역을 통해서 ‘지역 한계’, ‘지역적 제한’, ‘영토의 제한’, ‘영토 분계선’ 등의 다양한 표현이 후보로 선택될 수 있다. 물론 간단한 어구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그 나라 영토 안에 한정되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등으로 풀어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은 격식과 호흡을 중시하는 연설문이므로 가능하면 원문의 호흡을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맥락에서 풀어서 옮기는 것 보다는 간단한 어구로 옮기는 것이 이 글의 성격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작전 지역 제한’이나 ‘영토상의 제한’ 정도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방언적 요소의 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원문에 방언적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 분명할 때 이를 번역문에서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방언적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10) 음성적 요소 (예) 탁 : 툃
- (11) 음운적 요소 (예) 파리 : 포리 *체계적 음운 대응
- (12) 형태적 요소 (예) -것 같다 : -갑다
- (13) 통사적 요소 (예) 경상 방언의 단형 부정법
- (14) 어휘적 요소 (예) 강냉이 : 옥수수

그러므로 원문에 나타난 방언적 요소의 성격을 우선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주인공의 모음 발음이 표준어보다 길다면 번역에서도 장음 표시(예: 라리-싸!)를 해 준다든가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언적 요소는 그 종류에 따라 도저히 번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다만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했

다고 해서 그 화자의 말을 무조건 다 국어의 특정 지역 방언으로 대치한다든가 하면 곤란하다.

이밖에도 1음절 한자어 문제라든가 개별 어휘에 대한 처리, 어감의 차이 문제 등은 제11장 ‘번역의 실제’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X. 문장 부호

<차례>

1. 영어의 문장 부호

2. 국어의 문장 부호

3. 번역상의 문제

1. 영어의 문장 부호

영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장 부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콜론 (:): 인용구문 표시, 동격 표시, 설명의 기능
- (2) 세미콜론 (;): 등위접속사, 문장 성분 사이의 경계선, 삽입구문 표시
- (3) 쉼표 (,): 등위접속사, 문장 성분 사이의 경계선
- (4) 줄표 (--): 삽입구문 표시, 문장 성분 사이의 경계선

위의 용법에서 주목할 것은 (2), (3)의 접속사 기능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맥에 맞는 접속사를 보충해서 독해를 해야 완전한 의미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문장 부호의 적극적 의미 기능이다. (이 점은 번역과 관련하여 3절에서 다시 이야기될 것이다.)

2. 국어의 문장 부호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국어의 문장 부호 용법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서 번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장 부호들만 보이기로 한다.)

(5) 마침표: ㄱ. 문장 종결

ㄴ. 아라비아 숫자로 연월일 표시

ㄷ. 표시 문자 다음

* 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쓰고, 표제어나 표어
다음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음

(6) 쉼표: ㄱ. 같은 자격의 어구 연결

ㄴ. 짝의 구분

ㄷ. 대등절과 종속절의 연결

ㄹ. 바로 다음말을 꾸미지 않을 때(의도적인 휴지)

ㅁ. 호격과 응답어 다음

ㅂ. 특수한 접속어 다음

ㅅ. 삽입구 표시

(7) 쌍점: ㄱ. 내포되는 종류 열거 (예)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ㄴ. 소표제 뒤의 설명 (예) 일시: 1984년 10월 15일 오전 10시

ㄷ. 저자명 다음의 저서명 (예)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ㄹ. 시와 분, 장과 절 구분 (예) 10 : 35 <열 시 삼십오 분>

(8) 작은 따옴표: ㄱ.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있을 때

ㄴ. 마음속으로 한 말

(9) 줄표: ㄱ. 문장 중간의 부연 설명

ㄴ. 앞말의 변경이나 정정

3. 번역상의 문제

앞서 1절과 2절에서 다룬 양언어의 문장 부호를 살펴보면 영어에는 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문장 부호의 용법이 있다. 우선 영어의 콜론과 국어의 쌍점은 형태는 동일해도 기능이 다르다. 기능면으로만 보면 아예 다른 부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콜론의 기능 중에서 인용 구문의 표시는 따옴표가, 동격과 설명부 표시는 쉼표가 담당한다.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세미콜론의 기능은 쉼표가 담당

한다. 그리고 영어의 세미콜론과 쉼표는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어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의 접속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국어로 옮기면서 문장 부호를 생략하거나 부호 그대로 옮기거나 하면 문맥이 불투명하게 되어 버리고 만다. 다음의 번역문을 보자.

- (10) ①사회과학의 견해, 그리고 또 사회과학의 하나로서의 역사의 견해는 19세기를 통하여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②과학이 자연의 세계를 연구하는 경우의 방법이 인간 현상의 연구에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③이 시대의 전반은 뉴튼적 전통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④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메카니즘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⑤1851년에 출판된 '사회정학(社會靜學)'이라고 하는 허버트 스펜서가 엮어낸 저서의 표제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위 번역문은 다섯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잘 읽어 보면 첫째와 둘째,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 문장의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인과 관계인지, 아니면 예시 관계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각각의 문장이 모두 토막난 것처럼 따로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두 문장의 바른 문맥은 이러하다. 즉 19세기를 통해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발전해 온 역사학 덕분에 과학적 방법론이 인간 현상의 연구에까지 적용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첫째 문장은 둘째 문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째 문장은 넷째 문장의 예시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연결 관계가 번역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각 문장이 마치 서로 독립된 무관한 문장처럼 보여서 전체 내용의 유기적 구성이 손상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 원문 (10')을 보면 바로 이 문제의 연결 부분에 문장 부호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아래의 번역문 (10'')처럼 해당되는 연결 부분에 인과관계의 접속사와 예시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을 보충해 주어야 전체 문장의 집합이 통일된 의미 연결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10') The conception of the social sciences, and of the history among them, gradually developed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 and

the method by which science studied the world of nature was applied to the study of human affairs. In the first part of this period the Newtonian tradition prevailed. Society, like the world of nature, was thought of as a mechanism; the title of a work by Herbert Spencer, Social Statics, published in 1851, is still remembered.

(10") ...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과학이 자연의 세계를 연구하는 방법이 인간 현상의 연구에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메카니즘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1851년에 출판된 '사회정태학'이라고 하는 허버트 스펜서의 저서의 표제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편 삽입구에 쓰이는 문장 부호(-- --)도 국어로 옮길 때는 그 역할에 따라 수식이나 예시를 하는 어구로 풀어 주는 것이 좋다. 아래의 번역문에서 (11.a)보다는 (11.b)가 더 자연스러운 국어의 문장이다.

(11) The quietness after liberation--though ephemeral--creates the insight.

(11.a) 해방 후에 찾아오는 정적--비록 순간적이라 할지라도--그것이 지혜에의 통찰을 창조한다.

(11.b) 비록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해방 후에 찾아오는 정적이 지혜에 대한 통찰을 창조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어와 국어에서 줄표가 공히 삽입 구문 표시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양언어의 어순 차이로 말미암아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삽입 구문이 있다면 국어와 영어에서 각각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좀 복잡한 아래의 두 예문을 대상으로 줄표의 기능과 그 번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12) (Perhaps the situation would not have been so bad if it had ended right there.) But Eve had to have an accomplice in her activities--which may have been the origin of the observation that "misery loves company."

괄호 부분을 제외한 위 문장은 줄표를 기준으로 문장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후반부는 아담과 이브의 창세기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전반부를 수식하는 어구로 처리하지 말고 괄호 안에 넣든가 아니면 순서대로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12') 그러나 이브는 욕구를 실행에 옮기면서 공범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여기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13) They were admirable things for the observer--excellent for drawing the veil from men's motives and actions.

우선 줄표의 기능을 포함한 전체 문장의 구성부터 살펴보자. (앞에 나와 있는 주어 'they'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문맥상 '비웃음과 조롱'이다.) 줄표 이하 부분은 그 앞에 나온 명사 'the observer'를 꾸며 주고 있다. (원래는 마침표 자리에 줄표가 있었겠지만 생략이 되었을 것이다.) 전체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대략 '...에 뛰어난 관찰자에게 비웃음과 조롱은 감탄할 만한 것들이었다'는 정도의 줄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컨대 연애 감정을 대했을 때 자신도 그 감정에 빠져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지만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드러내는 일에 탁월한) 관찰자는 그런 감정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날카로운 이성으로 분석해 낸다는 것이다. 결국 관찰자는 비웃음과 조롱을 무기로 하여 동기와 행동의 위에 드리워진 감정의 장막을 벗겨낸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인간의 동기와 행동에 드리워진 장막을 벗겨내는 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관찰자에게는 조롱과 비웃음이야말로 감탄할 만한 훌륭한 무기였다.

다음으로 쉼표의 기능과 그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와 국어에서 쉼표의 기본적인 기능은 대동소이하다. 몇 가지 문제만 예문을 통해서 지적하기로 한다. 아래 예문을 보자.

(14) Of the nations of the world, Korea alone, up to now, is the sole one which has risked its all against Communism.

위 문장은 비교적 간단한데, 연설문에서 쓰이는 쉼표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번역에서도 어순을 뒤섞지 말고 원래의 위치에 쉼표를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그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나머지 번역은 다음과 같다. 'the sole one'은 앞에 나온 'nation'과 관계되므로 '유일한 나라' 정도면 무난한데 문제는 주어 '한국'에도 보조사 '만'을 덧붙여야 제대로 국어다운 맛이 나는 점이다. '한국'을 서술부로 돌려서 '...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식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초점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소홀히 취급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14')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 대한민국만이, 오늘까지, 공산주의에 대하여 자신의 모두를 건 유일한 나라입니다.

(15) All emotions, and that one particularly, were abhorrent to his cold, precise but admirably balanced mind.

위 문장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어구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쉼표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마지막 단어 'mind'를 수식하는 세 개의 연속된 형용사를 매끄럽게 옮겨 주는 것이 번역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는 서술부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길이가 짧다. 그래서 원문의 어순 그대로 옮겨 주면 문장 전체의 의미가 한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딘지 모르게 산만한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서술부를 먼저 옮기고 나서 주어부를 옮기는 것이 읽기에 낫다.

(15.a) 냉정하고 정확한 데다가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균형이 잡힌 그의 성격에는 모든 감정들, 특히 그 하나(사랑)만은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주어부의 끝에 쉼표를 넣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쉼표의 분리 기능(영어의 경계선/ 국어의 의도적 휴지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15.b) 모든 감정들, 특히 사랑은, 냉정하고 정확한 데다가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균형이 잡힌 그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XI. 번역의 실제

본절에서는 9개의 영문을 대상으로 이를 실제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앞서 검토한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Reminiscences」 by Douglas MacArthur

The tragedy of Korea is further heightened by the fact that as military action is confined to its territorial limits, it condemns that nation, which is our purpose to save, to suffer the devastating impact of full naval and air bombardment, while the enemy's sanctuaries are fully protected from such attack and devastation. Of the nations of the world, Korea alone, up to now, is the sole one which has risked its all against Communism. The magnificence of the courage and fortitude of the Korean people defies description. They have chosen to risk death rather than slavery. Their last words to me were, "Don't scuttle the Pacific."

I have just left your fighting sons in Korea. They have met all tests there and I can report to you without reservation they are splendeid in every way. It was my constant effort to preserve them and end this savage conflict honorably and with the least loss of time and a minimum sacrifice of life. Its growing bloodshed has caused me the deepest anguish and anxiety. Those gallant men will remain often in my thoughts and in my prayers always.

번역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앞에 놓인 글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조를 선택해서 구체적인 문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정시나 소설의 어조가 전문 서적의 어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논리에 앞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각도에서 위의 글을 한번 간

단히 살펴보자. 이 글은 맥아더 장군이 한국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된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의회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이다. 따라서 번역자도 이 글이 공식적인 연설문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자는 구어체를 많이 살리고 말씨도 경어체로 끝을 맺어야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전할 때 (신문과는 달리) 경어를 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약간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어순도 가능하면 원문을 따르는 것이 좋은데, 이 점은 이 연설을 동시 통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납득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전반적으로 더이상의 전쟁 확대를 반대하는 군사 전문가들과 정책 결정자들 및 일반 여론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선 확전을 통한 종전이라는 자신의 전략이 한국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며, 한국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최일선에서 막고 있는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주장한 다음,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에 대한 위로와 치하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첫째 문장은 그 길이가 상당히 긴 관계로 전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옮기는 일이 쉽지 않다. 문제는 'by the fact that ...' 이하의 문장이 너무 길어서 앞 문장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주어 '한국의 비극은'을 번역해 놓고 'by the fact that ...' 이하의 문장을 기다랗게 전부 번역한 다음에 서술어를 번역해 주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가 너무 떨어져서 이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은 'by the fact that ...' 앞의 문장을 먼저 번역하여 '한국의 비극이 더욱 고조된 것은 군사 행동이 작전 지역의 제한에 얽매어 있어서 우리가 구하러 온 나라는 해공군의 전면적인 포격으로 인한 참혹한 충격을 감내해야만 하는 반면에, 적의 성소는 그러한 공격과 참화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처럼 해 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by the fact that ...' 이하의 문장을 번역해 주면 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옮기지 말고 적절한 길이로 나누어 번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내용의 핵심은 작전 지역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적대 세력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it condemns'부터 시작하는 나머지 부분이 위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고 있으므로 여기를 전후로 예컨

대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한국의 비극은 군사 행동이 작전 지역 제한에 얽매어 있는 관계로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나라는 해공군의 전면적인 포격으로 인한 참혹한 충격을 감내해야만 하는 반면에 적의 성소는 ...’ 다음으로 어휘와 어구를 살펴보자. ‘territorial limits’에 대해서는 ‘지역 한계’, ‘지역적 제한’, ‘영토의 제한’, ‘영토 분계선’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 우선 그 배경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적절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당시 상황은 1950년 겨울부터 압록강을 넘어서 한국전에 참전한 중공군 때문에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양측이 엄청난 소모전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다. 중공군은 압록강 너머의 만주 지역으로부터 병력과 물자를 보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을 궤멸시키기 위해서는 이 보급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 맥아더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맥아더는 만주 지역에 원폭을 투하하여 적의 보급선을 끊는 동시에 중국 해안에 일대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이 기회에 중국까지 국민당 정부에 수복시켜 주려고 계획했다고 한다. 그러나 소련의 반응을 우려한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맥아더의 작전 수행권 범위를 ‘한반도 이내’로 못박음으로써 그러한 전술의 시행을 가로막았다. 맥아더는 이 글에서 그러한 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글은 앞서 언급했듯이 격식과 호흡을 중시하는 연설문이므로 가능하면 원문의 호흡을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맥락에서 풀어서 옮기는 것보다는 간단한 어구로 옮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함축적인 ‘작전 지역 제한’이나 ‘영토상의 제한’ 정도가 무난하다. 다음으로 ‘heightened’라는 단어의 번역어 문제이다. 이 단어는 ‘비극’을 받는 서술어이므로 ‘고조되다’나 ‘심화되다’, ‘커지다’ 정도가 무난하다. (필자가 유사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을 제치고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가운데서 ‘고조되다’가 가장 문맥에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지배 관계도 모국어 화자의 중요한 문법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긴장된다’거나 ‘조장된다’는 번역은 앞에 나온 주어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빚어진 오류라 하겠다. ‘sanctuaries’는 원래 종교적인 의미로 세속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성소 聖所’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적지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역설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로 ‘성소’라고 하거나 ‘심장부’, ‘거점’ 등도 무난하다. ‘devastation’은 바로 앞에 나오는 ‘attack’의

결과로 생긴 상태이므로 '참화' 정도가 무난하다. '황폐화'라는 어휘는 추상적인 성격이 너무 강해서 얼른 읽히지 않는다.

둘째 문장은 비교적 간단한데, 연설문에서 쓰이는 쉼표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원래의 위치에 쉼표를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그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the sole one'은 앞에 나온 'nation'과 관계되므로 '유일한 나라' 정도면 무난한데 문제는 주어 '한국'에도 보조사 '만'을 덧붙여야 제대로 국어다운 맛이 나는 점이다. '한국'을 서술부로 돌려서 '...은 오직 한국뿐입니다' 식의 번역은 초점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소홀히 취급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와 넷째 문장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용기와 투지의 장엄함', '인내의 대단함' 식의 번역은 명사형 '장엄함'의 추상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형용사로 돌려서 '장엄한 ...' 식의 번역이 낫겠다. 그리고 넷째 문장의 시제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점이 번역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택해 왔었다' 식의 대과거 표현은 국어에서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다.

다섯째 문장에서는 인용문의 처리가 관건이다. 이 장면은 맥아더가 가면 미국도 한국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한국민들의 절박한 심경이 담겨 있다. 그런 맥락에서 단어 'scuttle'를 좀더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발을 빼다'는 정도의 표현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the Pacific'은 '태평양'인데, 이것은 당시 행정부에 유럽만 공산주의의 확산에서 지키면 된다는 대서양(유럽) 지상주의자들을 겨냥한 표현이다.

여섯째 문장에서는 'your fighting sons'의 번역이 관건이다. 우선 '당신'보다는 '여러분'이, '아들'보다 '자제'가 연설 장면엔 맞는 번역이다. 그리고 'fighting'은 '전투 중인'으로 옮긴 번역이 가장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국어답다. '한국의 투사들' 식의 번역은 '한국군'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일곱째 문장에서는 'without reservation'과 'splendid'의 번역이 문제인데, '기탄없이', '주저없이', '서슴없이', '서슴지 않고', '자신있게', '솔직하게' 등이 떠오른다.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자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라도'의 뜻이므로 '주저없이'가 가장 가까워 보인다. 'splendid'는 '훌륭하다' 정도를 떠올릴 수 있겠는데, 우리식 정서대로 하자면 '장하다'도 좋은 번역으로 생각된다. 단 이 자리가 공식

석상인 점을 감안하면 ‘영웅적이다’ 정도로 옮겨 주는 방식도 좋을 것이다.

여덟째 문장에서는 ‘the least loss of time’과 ‘a minimum sacrifice of life’의 처리가 관건이다. 이 부분은 양쪽이 대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번역에서도 이 점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인명 피해와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나 ‘최소한의 시간 손실과 인명 손실로써’ 식의 번역은 이 점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단의 시간과 최소의 인명 희생으로’이나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정도가 원문의 표현 효과도 살리면서 내용도 충실하게 옮기고 있다고 하겠다.

아홉째 문장에서는 ‘growing bloodshed’의 번역이 문제인데, ‘증가하는 사상자’나 ‘늘어나는 유혈 참사’, ‘늘어나는 전사자들’, ‘점점 늘어나는 사상자’ 등은 무난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국어답지 못한 느낌이 든다. 아예 구문을 바꾸어서 ‘사상자들이 늘어날수록 제 고뇌와 근심 또한 마음속 깊이 자리잡아 갔습니다’ 식으로 옮기는 것도 원문과 호흡이 그다지 다르지 않으므로 괜찮을 듯싶다. 아울러 앞서 밝힌 바 있듯이 이 글의 성격을 감안할 때 ‘나’보다는 ‘저’라는 겸양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remain often’의 처리가 문제이다. 원문 그대로 옮기자면 ‘종종 남아 있다’거나 ‘자주 남아 있다’고 해야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음 귀절을 보면 ‘in my prayers always’에서 끝에 ‘always’가 붙어 있어서 이 부분이 앞의 ‘often’과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우리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어떤 생각을 계속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어떤 대상을 빠트리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 점이 대부분의 응모 번역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했다. 예컨대 ‘종종 나의 기억 속에 그리고 항상 나의 기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정도는 그래도 나은 편인데, ‘나의 기억과 기도 속에 종종 남아 있다’ 식으로 한데 뭉뚱그리거나 ‘언제나 기억할 것이며,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처럼 아예 ‘often’의 의미를 변질시키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often remain’이라는 귀절을 생각해 보자. ‘생각이 자주 날 것이다’는 표현은 국어로 어색하지만 거꾸로 결국 ‘완전히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는 표현은 자연스럽다.

<2> 'On Nature and Environment,' by J. Krishnamurti

The moon was just coming over the hills, caught in a long cloud, giving her a fantastic shape. She was huge, dwarfing the hills, the earth, and the green pastures; where she was coming up was more clear, fewer clouds, but she soon disappeared in a dark rain-bearing clouds. It began to drizzle and the earth was glad; it doesn't rain much here and every drop counts. The big banyan and the tamarind and the mango would struggle through, but the little plants and the rice crop were rejoicing at even a little rain. Unfortunately even the few drops stopped and presently the moon shone in a clear sky. It was raining furiously on the coast, but here where the rain was needed, the rain-bearing clouds passed away. It was a beautiful evening, and there were deep dark shadows of many patterns. The moon was very bright and the shadows were very still and the leaves, washed clean, were sparkling.

이 글은 자연에 대한 명상을 담고 있다. 명상이라고 해도 심각한 내용이 아니라 주로 주변 자연 경관에 대한 서경적 묘사로 일관되어 있어서 일단 글의 성격과 흐름의 파악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글의 주요 제재를 보면 우선 달이 등장하고, 이어서 비와 대지가 나온 다음에 그 모두를 감싸 안은 저녁 풍경이 전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묘사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첫째 문장에서는 '달'을 수식하는 부분 'caught in a long serpentine cloud'의 처리가 관건이다. 우리말 어순은 수식하는 부분이 수식받는 부분의 앞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이 부분을 먼저 번역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차례대로 번역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이 글이 묘사문인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한 원문의 순서대로 옮겨 주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말이나 글이란 상대방에게 먼저 전달하고 싶은 비중대로 앞에다가 두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경치를 묘사한 글

이라면 묘사자의 시점(視點)까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원문의 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지켜서 옮겨 주는 것이 좋다.

일단 첫부분에서 중요한 정보는 ‘달’이라기 보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는 장면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하의 수식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어를 생략하고 옮겨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다시 말해서 ‘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만 주어를 ‘달’로 언급해 주면 독자들에게 그다지 부담을 주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식을 쓴다면 대체로 다음처럼 될 것이다.

“달이 언덕 너머로 막 떠오르고 있었다. 뱀처럼 기다랗게 생긴 한 조각 구름에 걸려서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 다음에 곧바로 또 달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더라도 그 생략된 주어를 ‘달’로 이해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둘째 문장은 옮기기에 앞서 머리속에 광경을 그려보는 작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언덕이나 산 위로 떠오르는 달은 처음에 굉장히 커 보인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언덕이나 산이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점차 하늘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배경이 없어지므로 차츰차츰 작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착시(錯視)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달은 실제로 큰 것이 아니라 ‘크게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번역에서처럼 ‘... 보인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언덕, 대지, 초원’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놓는 조작은 은 글쓴이의 시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다. 지금 글쓴이의 시선은 언덕 위로 떠오르는 달에 있으므로 바로 아래 있는 ‘언덕’에서부터 그 아래 ‘대지’로 옮겨오다가 다시 ‘초원’을 만나게 되므로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원문의 형용사 ‘huge’는 한자어 ‘거대하다’보다는 우리말로 ‘엄청나게 크다’든지 ‘무지무지하게 크다’ 정도로 옮겨 주는 것이 훨씬 감각적으로 쉽게 다가온다.

셋째 문장은, 달이 떠오른 곳은 다른 곳보다 하늘이 맑아서 구름도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구름이 움직였겠지만) 어느 틈엔가 달이 검은 구름다발 속으로 들어가 버린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접속사 ‘but’을 전후로 시간의

흐름을 이어주는 부사 'soon'을 '이내', '어느 틈엔가', '슬쩍' 따위의 부사어로 살려 주어야 앞뒤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진다는 점이다. 'rain-bearing'은 '비를 머금은', '비를 잉태한', '비를 (잔뜩) 품은', '비를 뿌릴 것 같은' 등으로 다양했지만 이 가운데서 '비를 머금은'이나 '비를 품은' 정도가 우리말 어법으로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넷째 문장은 동사 'drizzle'과 형용사 '(was) glad'의 처리가 관건이다. 이 동사의 앞부분을 '가랑비'나 '이슬비'로 옮긴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뒷부분이 문제이다. 언뜻 떠오르는 어휘는 '내리다' 정도인데, 비가 처음으로 내릴 때 쓰는 우리말 표현으로는 오히려 '떨어진다'거나 '듣는다', '후두둑거린다' 정도가 자연스럽다. 후반부의 'raining furiously'를 고려하여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로 하여 '이슬비'라는 어휘를 해체하여 옮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대지는 기뻐다'보다는 '대지는 기뻐했다'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쁘다'라는 형용사는 주어가 그러한 심리 상태라는 뜻이고 '기뻐하다'는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그러한 심리 상태를 겪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필자는 주변 경관에 대해서 항상 관찰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대상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뻐하다'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여섯째 문장은 접속사 'but'을 전후로 문장의 서법(敍法)이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앞부분은 조동사 'would'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법이고 뒷부분은 직설법이다. 결국 보리수나 태머린드, 망고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것이다. 서법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커다란 벵골 보리수나 태머린드, 망고 같은 나무들이라면 (빗방울을 서로 제가 다 차지하려고) 다들 터이지만, (여기 보이는) 작은 관목들과 농작물은 아주 적은 비에조차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일곱째 문장은 문장 전문을 수식하는 부사 'unfortunately'와 접속사-부사의 연결 'and presently'에 대한 파악이 관건이다. 우선 전문 부사는 '불행히도'나 '안타깝게도'가 다 무난하다. 그리고 접속사-부사 연결 문제는 우리말 어미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몇 안 되는 빗방울조차 멈추더니 어느 틈엔가 맑은 하늘에 달이 빛나고 있었다.'

여덟째 문장은 해안가와 필자가 위치한 장소의 대조를 살려야 한다. 그런데 해

안가는 문맥상 필자가 위치한 곳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한뼘 차이로 비가 오고 안 오고 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저쪽(저기) 해안가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정작 비가 절실한 여기 이곳에서는 비를 머금은 구름다발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raining furiously'를 합쳐서 '장대비'나 '폭우'로 옮길 수도 있는데, 부사는 그대로 '세차게, 맹렬하게'로 옮겨 주는 것이 감각적으로 낫다.

아홉째 문장은 형용사구 'deep dark'와 명사구 'shadows of many patterns'의 자연스러운 번역이 관건이다. 우선 'deep dark'에 대해서는 '깊은', '흑암', '깊은 어두운', '깊고 어두운', '깊고 짙은', '짙고 검은', '진하고 어두운', '어두운', '질검은' 등으로 옮길 수 있는데, 우리말의 단어 연결상 곤란한 세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을 빼면 대체로 무난하다. 원문에 가장 가까운 뜻은 '그윽하도록 검은' 내지 '칠흑' 정도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shadows of many patterns'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겠지만, 순서를 바꾸어서 '칠흑같은 그림자들이 수많은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글쓴이의 시점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머무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즉 '달'과 '그림자'와 '나뭇잎'을 동일하게 취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문맥상 달과 그림자는 배경의 역할을 하고 초점은 반짝이는 나뭇잎에 떨어져서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다. 달도 밝고(→하늘) 그림자도 고요하게 꿈쩍 않고 있는데(→땅), 이들을 배경으로 그 중간(→허공)에서 나뭇잎들이 반짝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옮겨 본다면 '달은 아주 밝고 수많은 그림자도 지극히 고요한데, 나무의 잎새들이 깨끗이 씻겨 반짝이고 있었다' 정도가 될 것이다.

<3> 'Compendium of the World's Languages,' by L. Campbell

Korean has been variously connected with Dravidian, Austronesian, Palaeo-Asiatic, Chinese, and, most convincingly, with the Altaic languages, with which it certainly shares many grammatical features. How many of

these resemblances are areal or typological, however, is a moot point, and the exact genetic affinity of Korean remains questionable. The Chinese element is very large but essentially alien. Comparison with Japanese yields a surprising wealth of morphological and syntactical similarities, but the two languages seem to have developed in parallel, rather than to be derived from a common genetic source.

Modern Korean derives from the ancient Korean Han dialect, which ousted its rival congeners thanks to the rise of the Silla state, where it was spoken. It is spoken today by between 50 and 60 million people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in Korean colonies in China, Japan, and elsewhere. The literary norm is based on the Seoul dialect.

첫째 문장에서는 ‘most convincingly’를 전후한 문장의 연결이 번역의 관건이다. 즉 위 구문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앞 부분에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서술어를 두 번 반복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with which ...’ 이하 구문은 ‘and most convincingly’ 이하의 문장에만 걸리는 것보다 전체 문장에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는 쪽이 옳다. ‘the Altaic languages’ 다음에 쉼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우리말로 다시 옮겨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정도가 될 것이다.

“한국어는 드라비다어, 오스트로네시아어, 고아시아어, 중국어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현재까지) 가장 확실하게는, 알타이어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한국어는 이들 언어와 많은 문법적 특징(자질)들을 공유하고 있다.”

둘째 문장에서는 명사절을 포함하고 있는 주어부의 번역과 두 단어 ‘areal’, ‘typological’의 처리가 관건이다. 우선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자. 이 두 단어는 언어학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쓰인다. 즉 ‘areal’은 두 언어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존재할 때, 이 유사성이 단순히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서로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어떤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통이 다른 두 언어가 우연히도 동일한 지역에 분포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씩 닮은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typological’이란 단어는 두 언어가 원래부터 ‘유형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유형적인’이란 말은 언어를 형태적 특성에 따라 구분할 때 쓰이는 교착어, 굴절어, 포함어 등의 ‘유형’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계통적인’ 정도의 뜻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접속사 ‘or’을 가운데 두고 쓰인 두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고 나면 앞 부분 ‘How many of these resemblances ...’의 의미도 자연히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genetic affinity’는 원문 그대로 옮기면 ‘유전적인 관련성’, ‘발생학적 유연성’ 등이 되는데, 언어학적으로는 ‘유전적’이나 ‘발생학적’이라는 술어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통적’이라는 어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시 번역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사점들 가운데서 어디까지가 지역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유형적인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한국어의 정확한 계통적 유연성(有緣性)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셋째 문장은 단어 ‘large’, ‘alien’의 정확한 국어 어휘 선택이 문제이다. ‘large’에 대해서는 대체로 ‘크다’라는 어휘를 쓸 수 있겠는데, 중국어적 요소가 ‘크다’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말의 ‘크다’가 상하의 질이를 나타내는 의미만 있지 공간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간적인 확장 의 의미를 가진 ‘광범위(하다)’라는 한자어를 쓰든지 아니면 ‘영향력이 크다’처럼 의미를 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alien’에 대해서는 ‘성질이 다르다’, ‘외국의 것이다’ 등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대체로 무난하지만 여기서는 ‘계통이 다르다’는 뜻이 강하므로 ‘외래적이다’ 정도가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접속사 ‘but’ 이하의 문장을 보자. 이 부분의 의미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하나의 공통 근원(그것도 계통적으로 관련이 있는)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각기 따로 따로

발달해 오면서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인해서 서로 공통적인 특성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두 언어의 유연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통적 공통 근원'이란 결국 '공통 조어(祖語)'를 가리킨다.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를) 일본어와 비교해 보면 형태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 놀랄만큼 많은 유사성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이들 두 언어는 하나의 공통 조어에서 갈라져 나왔다가보다 독자적으로 발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문장에서는 마지막 관계 부사절의 처리가 문제이다. 그 부분은 바로 앞 단어를 꾸며 주는데, 앞 부분의 길이가 길어서 처리가 용이하지 않다.

여섯째 문장에서는 수사의 번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외국어 중에서 수사는 특히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범주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olonies'는 '식민지'가 아닌 '거류지', '거주지' 정도가 무난했다. 물론 단순한 거주만이 아니라 거주와 함께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여러가지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거류지'가 더 낫다고 하겠다.

마지막 문장에서 'literary norm'은 이른바 '표준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굳이 'literary'를 살리려면 '문학적 표준어'보다는 차라리 '표준어 문어(구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가 낫겠다.

<4> 「The Secrets of the Palace」 by Arthur Conan Doyle

To Sherlock Holmes she is always the woman. I have seldom heard him mention her under any other name. In his eyes she eclipses and predominates the whole of her sex. It was not that he felt any emotion akin to love for Irene Adler. All emotions, and that one particularly, were abhorrent to his cold, precise but admirably balanced mind. He was, I take it, the most perfect reasoning and observing machine that the world has seen; but as a lover, he would have placed himself in a false position. He never spoke of the softer

passions, save with a gibe and a sneer. They were admirable things for the observer--excellent for drawing the veil from men's motives and actions.

첫째 문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the woman'에 나타난 정관사의 용법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정관사(定冠詞)란 이름 그대로 어떤 정해진 사물에 붙어서 그 사물을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정관사가 붙는 단어는 문장 안에서 이미 주어진 정보이므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방안에 있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거, 창문 좀 열지 그래."라고 말할 때, 이 대화를 영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반드시 정관사가 붙는다.

(1) Please open the window.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대화 중에 나오는 창문이 어디에 붙어 있는 어떤 창문인지 드러내 놓고 말은 안 해도 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말로 "그 창문 좀 열지 그래."하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또 상당히 어색해진다. 위 원문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주인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여자인 셈이다. 그리고 그 말이 지칭어(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가 되어 있으므로 이 사실까지 감안하다면 인용 부호까지 첨가하여 '그 여자(여인)' 정도로 해 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리라고 생각된다. '한 여자'라든가 그냥 '여자(여인)'로 옮기면 원문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둘째 문장은 '그 여자'라는 지칭어 말고 다른 지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그냥 '다른 이름으로'라고 옮겨 주면 된다. 그리고 이 문장의 후반부 동사는 분명히 'mention'이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언급하는(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이 문장에는 인칭 대명사가 세 번 나오는데 그대로 옮겨 주면 아주 어색한 번역문이 되고 만다. 원래 국어에서는 특별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의 주어 생략할 수 있으며, 특히 주어가 명사 아닌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빈번히 일어난다. (물론 주어 이외의 위치에서도 대

명사는 생략되는 일이 많다.) 영어는 언어 구조상 주어와 필수적이어서 서술어가 필수적인 우리 국어와 좋은 대조가 된다. 영어에서 주어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이른바 비인칭 주어의 존재만 생각해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번역문에서 인칭 대명사가 지나치게 많이 쓰이면 자연스러운 국어의 문장이 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장에서는 원문의 마지막 부분 'the whole of her sex'의 정확한 처리가 핵심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동류 여성 전체' 정도이다. '모든'이나 '은' 등의 어휘를 보충해서 '그의 눈으로 보면 그녀는 다른 모든 여성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지배한다.' 정도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문장에서는 'It was not that'의 역할 파악이 관건이다. 이 어구는 외형적으로는 부정어(否定語) 'not'을 강조하는 단순한 강조 구문처럼 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사건에 대한 설명적인 분위기를 함축하고 있는 일종의 접속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문장과 연결 관계가 이 어구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예시문처럼 '그렇다고 해서' 정도의 접속 표현을 넣어서 옮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문장에서는 마지막 단어 'mind'를 수식하는 세 개의 연속된 형용사를 매끄럽게 옮겨 주는 것이 번역의 핵심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서술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다. 원문의 어순대로 옮겨 주면 문장 전체의 의미가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산만한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서술부를 먼저 옮기고 나서 주어를 옮기는 것이 읽기에 낫다.

“냉정하고 정확한 데다가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균형이 잡힌 그의 성격에는 모든 감정들, 특히 사랑은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주어부의 끝에 쉼표를 넣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모든 감정들, 특히 사랑은, 냉정하고 정확한 데다가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균형이 잡힌 그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마지막 단어 'mind'는 '정신'이나 '마음' 등의 추상적인 번역어보다는 '정신 세계'라든가 차라리 '성격' 등의 구체적인 어휘로 옮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문장은 중간 부분에 보이는 접속사 'but' 이하의 가정법 번역이 관건이다. 이 문장 전체의 뜻은 '내가 보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추리 관찰 기계였지만, 만일 스스로를 연인으로서의 자격도 가졌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전혀 가당찮은 착각이었리라'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에 넣고 전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나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는 여지껏 세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가장 완벽한 추리·관찰 기계였다. 하지만 만일 그가 (그런 추리 관찰 기계 말고) 연인으로서의 자격도 갖추었다고 한다면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round', 'perfect' 등의 단어는 그 자체의 어휘 의미상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상징할 수 없다고 하지만 강조 표현 등의 경우에 위의 원문처럼 최상급이 나오는 수도 있다.

일곱째 문장은 이중 부정의 표현이 쓰였는데, 긍정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야 할 것이다.

“연정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비웃고 조롱하곤 했다.”

결국 위의 원문 표현은 'cannot without ...ing'나 'never, but' 등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달성하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여덟째 문장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다. 우선 줄표(--의 기능을 포함한 전체 문장의 구성부터 살펴보자.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 'they'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앞문장에 나온 두 복수 명사 'passions', 'a gibe and a sneer'이다. 문법적으로 양자가 다 가능하므로 그 다음에 따질 것은 전체 의미의 논리성 여부이다. 위의 다섯째 문장에서도 나오고 바로 앞의 일곱째 문장에서도 나왔듯이 흠즈

는 '연애 감정' 따위를 절대 좋아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the observer'를 홈즈라고 가정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they'가 받는 것은 후자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줄표 이하 부분은 그 앞에 나온 명사 'the observer'를 꾸며 주고 있다. (원래는 마침표 자리에 줄표가 있었겠지만 생략이 되었을 것이다.) 전체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대략 '...에 뛰어난 관찰자에게 비웃음과 조롱은 감탄할 만한 것들이었다'는 정도의 줄거리가 될 것이다. 즉 보통 사람들은 예컨대 연애 감정을 대했을 때 자신도 그 감정에 빠져서 이를 제대로 볼 수 없지만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드러내는 일에 탁월한) 관찰자는 그런 감정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날카로운 이성으로 분석해 낸다는 것이다. 결국 관찰자는 비웃음과 조롱을 무기로 하여 동기와 행동의 위에 드리워진 감정의 장막을 벗겨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동기와 행동에 드리워진 장막을 벗겨내는 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관찰자(홈즈)에게는 조롱과 비웃음이야말로 감탄할 만한 훌륭한 무기였다.”

<5> 「Citadel」 by Archibald Cronin

Outside, a heavy rainstorm came blinding down between the mountains which rose on either side of the single railway track. The mountain tops were hidden in a grey waste of sky, but their sides, scarred by ore workings, fell black and desolate, blemished by great heaps of slag on which a few dirty sheep wandered in vain hope of pasture. No bush, no blade of vegetation was visible. The trees, seen in the fading light, were gaunt and stunted spectres. At a bend of the line the red glare of a foundry flashed into sight, illuminating a score of workmen stripped to the waist, their torsos straining, arms upraised to strike. Though the scene was swiftly lost behind the huddled top gear of a mine, a sense of power persisted, tense and vivid. Manson drew a long breath. He felt an answering surge of effort, a sudden

overwhelming exhilaration springing from the hope and promise of the future.

첫째 문장에서는 정확한 번역 어휘의 사용이 관건이다. 우선 첫 단어 'outside'는 문맥상 '기차의 차창 밖'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공은 기차 안에서 차창 바깥 경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위치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바깥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 시점(視點)을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차 안에서 비가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첫째 문장에 'down'이라는 부사가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번역도 '비바람이 마구 내리치고 있었다' 처럼 해 주는 것이 원문의 분위기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고 하겠다.) 위치상 상대적으로 아래쪽(→기차 안)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산봉우리쪽)을 올려다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래 예문을 비교해 보자.

(1.a)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니?

(1.b) 서울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니? (?)

(2.a) 서울로 가고 있는 항아

(2.b) 서울에 가고 있는 항아 (?)

(1)은 단순히 거리를 묻는 내용이므로 움직이지 않는 정적(靜的)인 표현이고 (2)는 서술어가 진행형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움직이는 동적(動的)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문에서 각각 (1.b)와 (2.b)가 어색하게 들리는 것도 이러한 문장의 성격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어의 조사 '로'가 움직이는 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위 원문의 첫째 문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기차 안에 있는 주인공이 시선을 차창 밖으로 옮겨서 바깥 경치를 바라보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동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창 밖에는'보다 '차창 밖으로는'이 어울리는 번역이라 하겠다.

한편 'single railway'는 한쪽 방향으로만 기차가 달리는 '단선 철로'이다. '홀로 놓인 기찻길'로 하면 오히려 '단선'이라는 개념보다 '다른 아무 것도 없고 오직 기

찾길만 있는(그 기찻길이 단선이든 복선이든 상관이 없는) 광경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산 사이로'는 '산들 사이로'처럼 복수 표현을 써야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번역이 된다. 원문의 'either'는 양쪽편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상의 사실을 감안하여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은 정도가 될 것이다.

“차창 밖으로는, 단선 철로의 양쪽에 도열한 산들 사이로 세찬 비바람이 내리치고 있었다.”

둘째 문장은 전반적으로 접속사 'but' 이하의 번역이 불투명했다. 여기서 서술어로 볼 수 있는 것은 동사 'fell'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3개 단어는 상황을 나타내는 보어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즉 '채광의 흔적 덕분에 들성들성 상처가 난 산허리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대한 광채(=광석 찌꺼기) 더미들 때문에 시커멓고 황량하게 더럽혀져 있었는데, 그 위로 ...'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구 'in a grey waste of sky'에서 'waste'는 '황량, 황폐'의 뜻이므로 '황량한 잿빛 하늘' 정도면 무난하다. 다음 어구 'in a vain hope of pasture'에서 'pasture'는 양떼의 먹이가 되는 풀이므로 '목초' 정도의 어휘가 어울린다. 양떼를 수식하는 어구는 '더러운'보다 '지저분한'이 어감상으로 주위의 정경에 맞는다. 다음에 다시 전문을 옮겨 본다.

“산봉우리들은 황량한 잿빛 하늘에 덮여 보이지 않았지만, 채광의 상처가 역력한 산허리들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거대한 광채 더미들 때문에 시커멓고 황량하게 더럽혀져 있었으며, 목초를 찾으려는 덧없는 기대감을 안은 지저분한 몇 마리 양들이 그 위를 이리저리 떠돌고 있었다.”

다음 문장은 부정의 부사어 'no'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므로, 국어의 특수 조사 '조차', '커녕', '도' 등을 적절히 쓰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앞 문장의 'vain'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까지 번역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no blade of vegetation'에 대한 우리말 표현으로는 '풀 한 포기'도

무난하다.

“(양들이 넉넉하게 먹을) 숲은커녕 풀이파리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다음 문장에서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정경 전체가 지닌 분위기가 이 문장 하나에 압축되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fading light’가 과연 어떠한 상태나 하는 문제가 남는다. 지금 차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지만, ‘비바람이 내리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해가 나지 않은 흐린 날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무는 석양(빛)’은 아무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인가? 비가 내리는 날 저녁의 정경을 상상해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즉 그냥 ‘희뿌연 빛’이 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어둠에 자리를 내 주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어둠 반 희뿌연 빛 반인 상태에서 점점이 늘어선 앙상한 나무들이 꼭 괴물처럼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뜻이다.

“약해져 가는 희뿌연 빛 사이로 보이는 나무들이 어쩐지 무시무시한 유령들처럼 떨고 있었다.”

다음 문장에서는 기차가 곡선으로 된 철로를 돌아 정경이 바뀌면서 주물 공장이 나타난 것인데, ‘철로가 구부러지더니’라든가 ‘기차가 한 굽이를 돌더니’, ‘기차가 곡선을 그리더니’ 등의 표현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red glare’는 언뜻 ‘전등 불빛’이 연상되는 ‘빨간 불빛’이라기보다 용광로의 불길을 나타내는 ‘붉은 불꽃’(또는 불꽃이 반사된 빛)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의 후반부에서 시야에 들어온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서 일꾼들, 몸체, 팔의 모습이 그것이다. 그런데 일꾼들과 그들의 몸체는 하나의 연결체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결국 몸체와 팔의 모습만 옮겨 주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감안하여 그 부분을 옮겨 본다면 ‘허리까지 옷통을 벗어젖힌 스무 명 남짓한 일꾼들의 긴장된 몸체와, 금세라도 내리칠 듯 치켜올린 팔이’ 정도가 된다.

“기차가 한 굽이를 돌더니 주물 공장의 붉은 불꽃이 시야에 들어왔다. 허리까지 옷통을 벗어젖힌 스무 명 남짓한 일꾼들의 긴장된 몸체와, 금세라도 내리칠 듯 치켜올린 팔이 그 빛에 반사되고 있었다.”

다음 문장에서는 상황의 정확한 이해가 관건이다. 즉 원문은 분명히 ‘들쭉날쭉 쌓아올린 상단 기어들 뒤로 주물 공장의 작업 광경이 가려서 안 보이다가 어느 틈엔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탄 기차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시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달리는 기차 속도에 지나쳐 사라졌다’고 하면 원문과 너무 많이 달라져 있다. 결국 기차의 속도와 그에 따른 장면의 변화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약간의 기술적 조작인 감은 있지만, ‘들쭉날쭉 돌아가는 상단 기어들의 윤곽이 잠깐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그 장면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 정도면 어떨까 싶다.

다음 문장에서는 심호흡 장면의 표현이 관건이다. 무슨 결심을 하거나 각오를 할 때 심호흡을 하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잘 머리에 떠올려 보자. 우리는 그럴 때,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가, 아니면 내쉬는가? 예컨대 면접 시험장 밖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 아마도 일단은 숨을 깊이 한번 들이쉴 것이다. 사실상 원문 단어 ‘drew’의 뜻도 ‘들이마시는’ 쪽이다.

다음 문장에서는 ‘answering’의 처리가 미숙했다. 즉 무엇에 대한 대답인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바로 앞 문장이 그에 대한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깊이 심호흡을 하면서 어떤 각오(또는 결심)를 다졌는데 그 각오에 대해 답이라도 하듯이 의욕이 용솨음친’ 것이다. 쉽표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은 그 의욕을 다시 풀어 주는 표현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아예 문장을 절단해서 다음처럼 번역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무언가 내면에서 용솨음치듯이 의욕이 (심호흡=각오/에) 답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장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분출시키는 갑작스럽고도 압도하는 듯한 흥분감이었다.”

<6> 「Readings on Marriage and Home」 by Edgar Cacey

At least symbolically, the story of the Garden of Eden predates all other accounts of man and woman and their attempt to live together. Adam and Eve didn't have too much trouble in the beginning--perhaps because Adam had been created first, and Eve knew it. But then trouble arose in the Garden. Eve found an apple in a tree. She knew that she was not allowed to eat the apple, but her tempter friend--the serpent, the symbol of worldly wisdom since the beginning of the earth--suggested her that this would not really be a bad deal and that it might actually be beneficial. So Eve ate the apple.

Perhaps the situation would not have been so bad if it had ended right there. But Eve had to have an accomplice in her activities--which may have been the origin of the observation that "misery loves company." She offered the apple to Adam, figuring that at least she would not be alone. And Adam, poor fellow, took the apple.

첫째 문장에서는 세번째 어휘 'symbolically'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번역의 관건이다. 즉 무슨 상징 또는 무엇이 상징적이었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의 문제이다. 그것은 (가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입증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도 없지만, 「성서」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상징적'이지 않은가!)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의 남녀였으므로 태초 이래로 모든 남녀의 이야기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전문 부사라도 중간 부분이 길어지면 한정하는(=수식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영어와 우리 국어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어는 서술어가 문장의 전반부와 가까우므로 문장의 머리에 놓인 전문

부사와의 거리도 가깝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man and woman and their attempt to live together’에서 밑줄 그은 부분의 번역이다. 단어를 꼬박꼬박 옮긴다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의 함께 살려는 시도’ 정도가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문장이 너무 늘어져서 곤란하다. 위 예시문도 이런 점에서는 불만스럽다. 그나마 잘 읽어 보면 문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반부 ‘이야기들’을 꾸미는 어구는 ‘시도’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도 포함되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려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문장의 길이를 최대한 줄이면서 원문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이 부분 번역의 핵심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전략) ... 남과 여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기 위한 노력 ...

여기서 밑줄 그은 부분은 다른 문맥에서라면 국어에서 잘 성립하지 않는다. 즉 원래 국어에서는 1음절 한자어는 비문(非文)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실례가 있다. 기독교가 우리 땅에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초창기의 「성경」은 두 번에 걸쳐 번역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1음절 한자어가 2음절 한자어로 바뀌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이정근의 논문, <성서 ‘재 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김형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에서 인용했음)

(2) 옥 → 감옥, 성 → 도성, 시 → 시간, 세 → 세금, 등 → 등불

그런데 위와 같이 서로 대립적으로 쓰인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간혹 정상적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흘러간 프랑스 영화의 우리말 제목으로 이 어구 ‘남과 여’가 쓰였음을 아마 독자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점을 반영하여 첫째 문장을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이겠지만,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남과 여,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려는 노력을 다루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장에서는 단어 'trouble'의 번역과 부정의 한정 범위가 문제이다. 또한 원문의 뜻은 주어 자신이 곤란을 겪고 있는 문맥이다. 그러므로 '문제'나 '곤란' 등의 어휘가 좋다. 부정의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예문을 보자.

(3) 아담과 이브는 태초에 아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위 예문의 밑줄 그은 부분은 영어 원문 'didn't have too much trouble'을 직역한 표현이다. 논리적으로 '아주 많다'를 부정하면 '아주 많지 않다'가 아니라 '그다지 많지 않다'가 되므로 위의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마치 '해야 한다'의 부정이 '해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인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줄표 다음 부분에서는 접속사 'because'가 문장 끝까지 걸린다는 점이 번역의 핵심이다. 둘째 문장 전체를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담과 이브는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다. 모름지기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이브 자신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셋째 문장과 넷째 문장은 문맥상 뒤 문장이 앞 문장의 이유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접속 표현을 써 주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아래에 다시 번역해 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브가 나무에서 사과(선악과)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문장은 편의상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우선 전반부에서는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종속절이 수동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행위자는 물론 하느님이다.) 그러므로 '타의에 의한 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국어 표현을 써서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함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타의에 의한 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국어 표현으로는 부정 조동사의 용법이 적당하다. 이를 고려해서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브도 그 사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후반부에서는 유혹자 뱀의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관건이다. 뱀을 수식하는 부분이 길고 종속절도 두 개씩이나 이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예시문은 아예 문장을 나눠 버렸지만 그래도 어딘가 불완전하다. 아래 밑줄 그은 부분 때문이다.

(4) (전략) ... 사과를 따먹는 것이 정말로 나쁜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이로울
것일 수도 있다고 ...

사실상 밑줄 그은 ‘것’이 반복된 것도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른바 자유 간접화법 (=묘출화법)이다. 즉 직접화법이 주는 생생한 전달 효과를 십분 살려 주면서 간접화법의 형식을 빌어 다른 문장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려는 것이다. 아래에 다시 번역해 본다.

“... 태초부터 세속적인 지혜의 상징인 유혹자 친구 뱀은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나, 아마 맛도 무지하게 좋을 거야, 하고 이브를 부추겼다.”

일곱째 문장에서는 가정법 과거완료 형식의 파악이 관건이다. 아래에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하긴 그 대목에서 바로 사과 이야기가 끝이 났더라면, 그런대로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여덟째 문장에서는 줄표를 기준으로 문장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후반부는 아담과 이브의 창세기 이야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전반부를 수식하는 어구로 처리하지 말고 괄호 안에 넣든가 아니면 순서대로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전반부를 아래에 다시 옮겨 본다.

“그러나 이브는 욕구를 실행에 옮기면서 공범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원문 ‘misery loves company.’의 의미이다. 사전을 보면 ‘동병상련(同病相憐)’으로 나와 있는데, 이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자성어를 써도 좋고 예시 번역처럼 해도 무난하다. 즉 ‘동병상련’이란 일반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 내지 ‘서로 동정하고 위로해 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단 이브가 먼저 충동을 느끼고 나서 아담을 끌어들이는 상황이므로 불행을 혼자서만 당하기 싫은 심정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혼자만 당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슬퍼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observation’은 ‘관찰을 기초로 한 말’의 뜻이므로 약간의 비약이 있지만 ‘경험법칙’도 무난한 번역이다. 아래에 다시 옮겨 본다.

“(아마도 여기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아홉번째 문장은 별 문제가 없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국어 조동사의 용법을 도입하면 상황을 좀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이 사과를 받아 먹은 것이 대단히 애석하고 아쉬운 일이다. 이러한 필자의 심정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국어의 결과 표시 조동사 ‘버리다, 말다’의 용법이다. 아래에 다시 옮겨 본다. (편의상 한 문장으로 옮겼다.)

“그리하여 이브는 그렇게 되면 혼자만 외롭진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담에게 사과를 건네 주었고, 그러자 우리의 불쌍한 친구 아담은 그만 그 사과를 받아 먹고 말았던 것이다.”

<7>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Prompted by the desire to settle, in a spirit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ll issues r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and aware of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is Convention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of peace, justice and progress for all peoples of the world,

Recognizing the desirability of establishing through this Convention, with due regard for the sovereignty of all States, a legal order for the seas and oceans which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will promote the peaceful uses of the seas and oceans, the equitable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their resources, the conservation of their living resources, and the study,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Believing that the codification and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e law of the sea achieved in this Convention will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peace, security, co-operation and friendly relations among all nations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al rights and will promote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s of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s set forth in the Charter,

Have agreed as follows:

우선 이 글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 글은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의 전문(前文)이다. 전문이란 법령이나 헌장 등에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취지와 역사성, 경위 등을 밝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글도 해양법 협약이 제정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활동 및 의의를 공표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게 되면 각 문장이 분사(현재분사 또는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것도 그리 당황스럽지 않게 이해가 된다. 즉 각 문장은 주어(협약 당사국)의 행동과 상태를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1) 협약 당사국은

..... 인식하고,

..... 인정하고,

..... 믿으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주어는 ‘이 협약의 당사국’ 정도가 적당하다. 이 협약은 국제연합과 관련된 것이므로 협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각국의 대표자’로 옮긴다면 원문도 그렇거니와 일반적인 법률 상식으로 보아도 ‘당사국’이 옳다. 다음으로 둘째 문단은 크게 보아서 ‘prompted (by)’ 이하와 ‘aware (of)’ 이하가 관장하고 있는 두 부분으로 각각 나뉘어진다. 그러므로 번역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옮기면 편하다. 동사 ‘prompt’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문제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극을 받다’, ‘고무되다’, ‘촉구되다’ 정도이다. 그 가운데서 ‘고무되다’가 가장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양법 협약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감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historic significance of this Convention as an important contribution’ 이하의 번역이다. 전치사 ‘as’를 전후로 일종의 명사화 구문이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풀어 주는 것이 이해가 쉽다. 아래 예문을 비교해 보자.

(2.a) (이 협약의) 중요한 기여자로서의 역사적 중요성

(2.b) (이 협약이)에 공헌한다는 역사적 의의

아마도 (2.b)처럼 서술어로 풀어 주는 번역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all peoples of the world’의 ‘peoples’는 복수 표지의 존재로 미루어 집합명사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민족들’ 정도가 바른 번역인데, 합쳐서 ‘인류’로 해도 무방하겠다. (‘세계의 인류’에서 ‘세계’는 잉여적인 표현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협약의 당사국은, 상호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양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에 고무되어, 인류의 평화와 정의 및 진보의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헌자로서 이 협약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고,”

셋째 문단은 관계대명사 ‘which’ 이하의 문장에 서술어가 두 개 등장하는데, 이의 적당한 연결 처리가 관건이다. 즉 전반부는 길이가 짧은 데 비해서 후반부는 상당히 길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후를 바꿔서 옮기면 내용상 곤란해진다. 이럴 때는 좀 작위적이긴 하지만 ‘아울러’ 등과 같은 부사를 써서 앞뒤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다음으로 몇 개 어휘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우선 ‘seas and oceans’은 ‘해양과 대양’, ‘바다와 대양’, ‘바다와 해양’ 등 많은 어휘가 있겠지만, 그냥 ‘해양’이면 과부족이 없이 적절하다. 애당초 ‘해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다’와 ‘큰바다’의 합성어이기 때문이다(海=바다, 洋=큰바다). 다음으로 ‘conservation’과 ‘preservation’의 번역도 문제이다. 전자는 우리말로 ‘보존’이 맞고 후자는 ‘보전’이 맞는다. 다음 국어 사전의 풀이를 잠깐 살펴보자.

(3.a) 보전: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지남

(3.b) 보존: 잘 간수하여 존속하게 함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

위의 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국토나 환경은 가능한 한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지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해양자원은 필요에 따라서 이용은 하되 완전히 고갈되지만 양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equitable’은 완전한 균질을 요구하는 ‘평등한’ 상태가 아니라 공정한 조건 하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공평한’ 상태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협약을 통하여,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정하게 고려하면서, 국제 교류를 촉진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과 해양 환경의 연구·보호·보전 작업을 증진시키게 될 해양의 법적 질서를 확립함이 바람직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넷째 문단 역시 종속절의 서술어가 둘로 되어 있어 이의 적절한 처리가 관건이다. 국어에서 주제화 보조사는 두 번 이상 한 문장에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사는 당연히 '이/가'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in conformity with'와 'in accordance with'라는 관용구는 대체로 둘 다 '.....에 따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런대로 무난하지만 약간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지루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원문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에 부응하여'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다. 마지막으로 '진보를 증진하다'라는 문장의 성립 여부를 조사해 보자. '우호를 증진하다'나 '선린관계를 증진하다'는 성립해도 '진보를 증진하다'는 아무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촉진하다'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이 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다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 협약으로 성취된 해양법의 법전화 및 전향적 발전이 정의와 평등권의 원칙에 부응하여 모든 국가간에 평화, 안전, 협력 및 우호관계의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국제연합 헌장에 공표된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세계 모든 민족들의 경제·사회적 진보를 촉진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8> 『Newsweek』 7/ 9/ 1994

Kim's death, officially from heart seizure owing to blockage of an artery, came at a time when U.S. and North Korean negotiators were just beginning talks in Geneva on the dangerously mounting dispute over Pyongyang's nuclear program. The first session on Friday was "very useful and productive," according to U.S. teamleader Robert Gallucci--and then the report came of Kim's demise. The North Koreans asked for a suspension of talks, which the Americans understnadingly gave. But what worried U.S.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 Bill Clinton as he was awakened at 6:30 a.m. in Naples to hear the news, was who in North Korea or indeed on earth

could be expected to command the authority that Kim had wielded in such matters.

The man styled by his police state for decades as the Great Leader had seemed to take personal charge of finding a way to end the showdown over accusations that his country was well on its way to building atom bombs. In his meeting last month with Jimmy Carter, Kim virtually overnight defused tensions by promising the former U.S. President that he would freeze the nuclear program. Washington then backed off from proposing economic sanctions to the U.N. and set in motion the new attempt at dialogue. The first-ever summi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slated for July 25, was another diplomatic triumph for the 82-year-old autocrat.

첫번째 문장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번역의 핵심이다. 원문에서는 'Kim's death'와 'came'이 각각 주어와 술어로 되어 있다. 소위 영어는 사람이 아닌 사물이 주어로 쓰일 수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구문을 물건 주어 구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우리 국어로는 허용되지 않는 구성 방식이다. 그러므로 주어를 그대로 살리려면 구문 자체를 피동 구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물의 추상성을 조금 약화시키든지 해야 한다. 삽입구는 그 역할이 수식이므로 수식을 받는 부분의 앞에 위치를 잡아야 하고, 여기 나오는 전치사 'from'은 소위 '죽음의 원인'을 표시하는 용법이다. 어휘면을 보면 'nuclear program'은 그냥 '핵 계획'이라고 하기 보다는 '핵 개발 계획' 정도가 낫고, 'dispute'도 어딘지 구태의연한 '논쟁'(이 어휘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말고 '입씨름'같은 어휘도 외교적인 상황의 표현에 어울린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공식적으로는 동맥 폐색에 따른 심장 발작으로 인한 것으로 발표된 김일성의 사망 소식은, 평양의 핵 개발 계획을 두고 위태롭게 높아만 가는 논란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 대표들이 제네바에서 막 회담을 시작할 때 터져나왔다.”

둘째 문장은 인용문의 처리와 아울러 앞문장과의 연결이 번역의 핵심이다. 국어에는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이 있는데 이 형식에 맞춰 인용문을 옮겨야 할 것이다. 일부만 따옴표를 해서 두드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물론 가능하다. 이 문장과 앞문장의 관계는 일종의 부연 설명이다. 즉 첫날 회담의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하필 그런 (회담이 잘 나가고 있던)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터져나왔다는 (매우 애석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아래에 다시 전문을 옮겨 본다.

“미국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의 말에 의하면 금요일에 열린 첫번째 회담이 ‘아주 유용하고 생산적’이었는데, 바로 이때 김일성의 서거 소식이 (회담장에) 날아들었던 것이다.”

다음 문장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관계대명사 ‘which’ 이하를 의미의 중복 없이 옮기면 좋을 것이다. 사실상 두 단어가 같은 뜻이므로 간단히 ‘수용했다’처럼 옮겨도 무방하다.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북한측은 회담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고, 미국측도 이를 양해했다.”

넷째 문장은 좀 복잡한데 복잡한 문장일수록 전체 구성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어부에서 목적어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 보면 전체 구조는 ‘...를 포함한 ...들이 우려한 바는 ...누가 ...행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정도로 된다. 한편 중간에 있는 부정사 구문 ‘to hear the news’는 ‘(깨어나서) 김의 사망 소식을 들은’처럼 논리적으로 당연히 결과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의 어순 조정도 중요하다. 주어 ‘누가’와 서술어 ‘행사하게 되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언뜻 앞뒤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그러나 나폴리에서 아침 여섯시 반에 잠을 깨서 김의 사망 소식에 접한 빌 클

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이 우려한 바는, 김일성이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휘둘러온 것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북한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과연 누가 다시 또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 다음 다섯째 문장은 이렇다. 그 앞 넷째 문장에 이어서 핵 협상 등과 같은 중요한 현안 문제는 김일성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완료로 되어 있는 것도 앞 문장에 대한 예증 방법을 동원한 설명이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핵 협상을 지켜보던 워싱턴의 관리들도 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우선 앞 부분에 나오는 ‘by his police state’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경찰국가에 의해서’가 원문의 정확한 뜻이다. 즉 아무리 주민들이 ‘위대한 영도자’니 ‘아버이 수령’이니 하고 떠받들어 도 서방측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러한 호칭도 ‘경찰 국가’이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일종의 풍자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둘러 말한다면 ‘주민들에 의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이다.) 굳이 ‘경찰 국가에 의해서’가 어색하면 ‘경찰 국가를 통해서’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상을 고려하여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자신의 경찰 국가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위대한 영도자’로 불려 온 김일성은 자신의 국가에서 원자탄의 제조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 비난을 놓고 벌이는 서방 세계와의 막판 대결을 끝낼 수 있는 방안을 혼자서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하 나머지 문장들은 원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에 해당된다. 즉 그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를 보여 주는 예시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문장에서는 어휘 ‘the former U.S. President’와 ‘virtually’의 정확한 번역이 문제이다. 먼저 ‘the former U.S. President’는 문자 그대로 ‘이전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전직’이라는 표현을 쓰면 한 사람의 전체 이력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 대통령이었다는 뜻을 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원문과 상당히 달라져 버린

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한자어 ‘전’을 사용하되 뒤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해 두는 수밖에 없다.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동음이의어 ‘전’(全) 등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virtually’는 사전상의 풀이대로 ‘실질적으로’라는 뜻이다. 이 말은 ‘명목상’이거나 ‘명분상’ 또는 ‘말로만 하는’ 긴장 해소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내용이 있는’ 긴장 완화 조치라는 뜻이다. 이상을 고려하여 아래에 전문을 옮겨 본다.

“지난 달 지미 카터와의 만남에서 김일성은 전(前) 미대통령에게 핵 개발 계획을 동결시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하룻밤 사이에 긴장 상태를 실질적으로 완화시켰다.”

다음 문장은 윗문장에 대한 결과 내지 반응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접속어를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점만 주의하면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그러자 미국은 유엔에 상정하기로 한 경제 제재 조치를 철회하면서 새로운 대화 시도를 구체화시키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문장 역시 김일성의 전권 행사에 대한 또 하나의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수사의 표기인데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그대로 읽게 되어 있다. 예컨대 ‘62세’ 같으면 <육십이세>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 숫자와 고유어를 섞어 놓은 ‘62살’과 같은 표현은 <육십이살>처럼 읽어야 하므로 잘못된 것이다. 이 점은 앞서 잠깐 보았던 시간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6시 30분’이라고 써 놓으면 읽는 사람은 <육시 삼십분>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숫자 표현에 있어서 한자는 한자끼리,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어울린다고 하겠다. 이상을 고려해서 전문을 다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7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사상 초유의 남북한 두 지도자간 정상회담은

올해로 여든 둘이나 된 노(老) 독재자가 거둔 또 하나의 외교적 승리였던 것이다.”

<9> 'Tales from Shakespeare,' by Charles Lamb

The two chief families in Verona were the rich Capulets and the Montagues. There had been an old quarrel between these families, which was grown to such a height, and so deadly was the enmity between them, that it extended to the remotest kindred, to the followers and retainers of both sides, insomuch that a servant of the house of Montague could not meet a servant of the house of Capulet, nor a Capulet encounter with a Montague by chance, but fierce words and sometimes blood-shed ensued; and frequent were the brawls from such accidental meetings, which disturbed the happy quiet of Verona's street.

Old lord Capulet made a great supper, to which many noble guests were invited. All the admired beauties of Verona were present, and all comers were made welcome if they were not of the house of Montague. At this feast of Capulets, Rosaline, beloved of Romeo, son to the old lord Montague, was present; and though it was dangerous for a Montague to be seen in this assembly, yet Benvolio, a friend of Romeo, persuaded the young lord to go to this assembly in the disguise of a mask, that he might see his Rosaline, and seeing her, compare her with some choice beauties of Verona, who would make him think his swan a crow.

이 문장은 원문 자체가 상당히 호흡이 길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두고 옮기면 상당히 번역이 힘들어진다. 적절한 길이로 원문을 잘라서 옮겨야 할 것이다.

첫째 문장은 의미는 단순하지만 원문의 어감을 제대로 살린 번역이 드물었다.

원문의 어감은 어순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베로나에서 가장 명문가를 들만 꼽으라면 그 들은 몬태규가와 케플렛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chief families’는 ‘저명한 가문’, ‘주요한 가문’, ‘명가로 꼽히는 집안’, ‘세도가’ 등 여러 번역이 나올 수 있는데 ‘유력한 가문’이나 ‘명문가’ 정도가 자연스럽다.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베로나에서 (가장) 유력한 두 가문은 부유한 케플렛가와 몬태규가였다.”

둘째 문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적절히 절단을 하든지, 만일 한 문장으로 옮기려면 어순을 그대로 두고 내려서 번역하는 이른바 전향적 번역 (progressive translation)의 방법으로 옮겨 주어야 무난하다. 물론 그러려면 중간 중간에 적당한 접속 표현을 삽입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도 원문을 적당히 절단하는 전자의 방법을 쓰기로 한다. 우선 시제를 기준으로 첫번째 관계대명사 ‘which’ 앞까지 끊어 보았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an old quarrel’에서 밑줄 그은 단어의 번역어가 관건이었다. ‘오랜’, ‘골이 깊은’, ‘오래 전부터’ 등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말에 어울리는 어휘는 ‘골이 깊은’이나 ‘해묵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quarrel’도 ‘싸움’보다는 ‘반목’ 정도가 문맥에 어울린다. 아래에 다시 옮겨 본다.

“이들 가문 사이에는 해묵은 반목이 있었다.”

그 다음 부분은 구문상 ‘such/so ... that ...; insomuch that ...’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세미콜론 앞까지를 끊는 것이 무난하겠다. 다시 구문을 살펴보면 ‘insomuch that’ 이하 문장은 바로 앞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분을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 <(1) which(quarrel) ... them, (2) that ... sides, (3) insomuch ... ensued>로 표시해 보자. 여기서 (1)은 (2)를 부연 설명해 주고 다시 (3)은 (2)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부를 순차적으로(예컨대 (1)→(2)→(3)식으로) 옮길 수 없고 중간 하나를 순서를 바꾸어 주어야 할 것이다(예컨대 (2)→(1)→(3)식으로). 그래서 대략 열개를 그려 보면 ‘... 할 만큼 원한이 깊어서 ... 피를 흘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될 것이다(이 부분은 아래 전문을 옮길 때 해당 위치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도록 하겠다.) 문장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insomuch' 이하는 크게 'could not ... (nor) ..., but ...'로 도식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미가 비슷한 부분이 'by chance'와 'accidental'로 나타나 있는데 둘 다 '우연히/우연한'으로 옮기면 다소 혼란스럽다. 앞뒤에 말을 보충하거나 하나를 '돌발적인' 정도로 바꿔 주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sometimes'의 의미도 제대로 제대로 짚어 주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거친 말이 오가는 것은 다반사고 가끔씩은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의미이다.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두 가문 사이의 반목은 양쪽 가문의 아주 먼 친척들과 추종자들, 고용인들한테까지 미칠 만큼 극도에 달했고 적대감 또한 극심해서, 몬태규 집안의 하인이 캐플렛 집안의 하인을 만날 수 없고 캐플렛 집안의 하인 역시 몬태규 집안의 하인을 행여 우연히라도 마주칠 수 없었으며, (혹시 마주치기라도 하면) 오히려 험악한 말이 오가고 가끔씩은 피를 보기도 했다.”

다음 부분은 관계대명사 이하가 앞 부분에 대한 결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자연스럽다.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그런 돌발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싸움이 심심치 않아서 종종 베로나 거리의 평온을 어지럽히곤 했다.”

셋째 문장은 'lord'의 적당한 번역어만이 문제이다. '영주', '주인', '가장' 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 것을 제외한 앞의 두 어휘가 무난하다. '영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어휘이고 '주인'은 대체로 어느 상황이나 적용되는 평범한 어휘이다.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캐플렛가의 노주인은 거창한 만찬을 베풀어 많은 고상한 손님들을 초대했다.”

넷째 문장은 별 문제가 없다.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베로나에서 칭송받는 미인이란 미인도 다 모였는데, 일단 몬태규 집안과 무관하기만 하면 참석자들은 누구든 대환영이었다.”

다섯째 문장은 문장의 연결상 세미콜론 앞까지 끊어 주는 것이 좋다. 다만 동격 부분의 처리에서 미숙한 번역이 눈에 띄었다. 어순의 조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몬태규가 노주인의 아들 로미오의 연인인 로잘린도 케플렛가의 이 향연에 참석했다.”

마지막 문장을 보자. 우선 ‘though’ 이하의 문장은 위의 예시 번역처럼 ‘얼굴을 내민다’ 든가 ‘눈에 뜨인다’ 정도로 옮기면 무난하다. 단 ‘... 사람이 보여진다’ 식으로 피동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색하다. 다음으로 원문의 구조를 보면 ‘that’ 이하가 친구 벤블리오의 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착안해서 이 부분을 직접화법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만일 그대로 옮긴다면 지나치게 긴 절이 주절에 안김으로 인해서 전체 주어와 서술어의 위치가 너무 멀어지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의미가 금방 와 닿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역시에 모종의 인위적인 조작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자유간접화법의 형식을 빌어서 아래에 전문을 다시 옮겨 본다.

“몬태규가의 사람이 이 연회에 얼굴을 내민다는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로미오의 친구 벤블리오는 로미오에게 말하기를, 가면을 쓰고 연회에 가면 로잘린도 만날 수 있고 베로나의 미녀들도 만날 수 있어, (혹시 누가 아나?) 그러면 자네의 백조 로잘린이 까마귀로 보일지 말아야, 하고 유혹했다.”

연구·집필 : 김정우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

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

1994년 12월 26일 인쇄

199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안 병 희

발행처: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전화 779-4812~8

팩스 779-4819

인쇄: 계문사

전화 736-5256

(비매품)